

第261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8月25日(金)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대통령비서실소관
나. 대통령경호실소관
다. 기획예산처소관
라. 국회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처소관
나. 국회소관
3.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처소관

審査된案件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
가. 대통령비서실소관
나. 대통령경호실소관
다. 기획예산처소관
라. 국회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
가. 기획예산처소관
나. 국회소관
3.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2
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가. 기획예산처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철국 위원이 사임하고 최성 위원이 보임되었습니다. 최성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성 위원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만큼 김한길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여야 위원과 함께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운영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가. 대통령비서실소관

나. 대통령경호실소관

다. 기획예산처소관

라. 국회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처소관

나. 국회소관

3.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처소관

○위원장 김한길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3항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오전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기획예산처 소관, 국회 소관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005년도 결산 등은 오늘 질의 종료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겸임위원회로서 일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소위원회 회부에 관해서 사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질의를 종료한 이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국정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대통령실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대통령실의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전화교환기 설치로 인하여 남아

도는 전화회선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수금 1016만 원과 내용연수 초과로 불용처리된 승용차 매각대금 1억 245만 원, 구내매점 임대료 772만 원 등 1억 2033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대통령실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592억 8243만 원 중 575억 857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억 9669만 원은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지출액을 주요경비별로 보면 인건비로 229억 9854만 원, 기본사업비로 264억 5293만 원, 주요사업비로 81억 34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시설개선사업비로 25억 7326만 원, 국정평가 및 홍보사업비로 30억 6725만 원,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비로 9602만 원, 정보화추진사업비로 23억 97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2억 6800만 원으로 전용 사유를 보고드리면, 봉급조정수당 부족액 1억 680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1억 원이 발생되어 직무수행경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16억 9669만 원으로 이 중 84.1%인 14억 2594만 원은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촉구한 경상경비 절감 이행을 위하여 비서실 자체 예산절약계획을 수립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가스 소비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으로 관서운영비를 절약하거나 행사용비품 등은 가급적 재활용하는 등으로 공공물자를 절약하는 한편, 각종 간담회 경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을 자제하는 등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나머지 불용액 2억 7075만 원은 용역비 등 7개 항목에서 발생한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가격을 다시 개정한 결과 2005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2004년도 말보다 519억 6279만 원이 증가한 2701억 208만 원입니다.

물품의 경우 2004년도까지 개발소프트웨어 금액이 사무용기기에 포함되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동 개발소프트웨어는 물품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일반물품과 분리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말 현재 물품 총액이 2004년도 말보다 12억 3363만 원이 감소한 143억 19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통령실 소관의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 대통령실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와대 비서실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변양균 정책실장입니다.

윤대회 경제정책수석입니다.

이백만 홍보수석입니다.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입니다.

정상문 총무비서관입니다.

남영주 민정비서관입니다.

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입니다.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입니다.

허성무 민원제도비서관입니다.

김택수 시민사회비서관입니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소문상 기획조정비서관입니다.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호실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는데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경호실 차장 염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대통령경호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장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주대준 행정본부장입니다.

주영훈 안전본부장입니다.

한순현 훈련원장입니다.

연규용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대통령경호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통령경호실 정원은 정무직 1명, 특정직 367명, 기능직 157명을 포함하여 총 525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87억 1469만 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출예산 현액의 97.4%인 571억 2851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6%인 15억 7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57억 46만 5000원, 기본사업비가 198억 1677만 8000원, 주요사업비가 116억 1127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비목별 결산 내역은 세출결산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31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국유재산 임차를 통하여 600만 원, 계약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으로 7만 5000원, 수당환급금 등으로 1573만 8000원, 불용품 처분을 통해 9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 총액의 2.6%인 15억 7537만 원으로 정원 미달운영 및 기준호봉 미달 등에 따라서 인건비 부문에서 12억 9884만 원과 정부 예산 절감 운영시책에 따른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사업비 부문에서 1억 2522만 원, 주요사업비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51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은 1080만 원으로 경호장비 도입이 현지 수출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지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은 2005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으로 토지는 총 59만 5019㎡이고 건물은 총 6만 5098㎡입니다.

2005년 변동 내역을 보면 민원부지 매입에 따라 토지 2609㎡ 건물 1470㎡가 증가하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 경호팀 철수 등에 따라 상도동 소재 경호·경비시설용 토지와 건물이 감소하였고 기타 입목죽과 무체재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마

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이병완 비서실장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정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국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는 글을 직접 썼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가지고 장명호 사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김희갑 씨—열린우리당 구청장 낙선자입니다—가 6월 초쯤 아리랑 TV 장명호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제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김 씨는 장 사장한테 추천기관은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부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원자가 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당당하게 부사장이 될 테니까 같이 일을 잘 해 보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국민이 할 것입니다마는 누가 판단하더라도 지원자가 이런 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청와대로부터 뒤에서 확답을 받았다고 국민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완 비서실장께서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인사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사 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만 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한다, 이것이 획기적인 발전이다” 이런 주장을 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8월 23일 그저께 노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은 “인사 추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홍보수석실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병완 비서실장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원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사안은 구분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군현 위원** 작년에 이병완 실장께서 국정감사에서 인사의 원칙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맞지요.

그러면 그저께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 말씀도 맞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국민이 판단할 때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원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논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유 차관 경질 후에 문제가 되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신문유통사업을 잘못한다고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자른 것 맞지요? 청와대와 대통령의 공식 입장입니다. 무능력했기 때문에 잘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과정을 말씀하시지 말고, 무능해서 잘랐다, 자른 이유가 무능이라는 이유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무능한가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현재 현 정권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다면평가 점수에서 유 차관이 몇 점을 받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이군현 위원** 96.8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96.8이 무능한 것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유능했기 때문에 차관에 발탁을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청와대가 유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임명한다라고 임명 이유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능력 있다고 뽑힌 사람이 인사청탁 안 들어주면 6개월 만에 무능해집니까? 그 논리가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무직 인사는 그런 유능력만이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임명할 때 유능하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까? 경질할 때 무능하다고 판단한 게 잘못입니까?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발탁과 경질의 사유가 다 다릅니다.

○**이군현 위원** 물론 다르지만, 유능하다고 96.8을 받은 사람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6개월 만에 갑자기 무능해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유·무능 차원을 떠나서 정무직으로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물론 정무직의 인사권, 장관이나 차관은 다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 임명 당시의 임명 이유하고 경질 당시의 경질의 이유하고 국민들이 볼 적에 소가 웃을 일 아납니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경질 이유를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군현 위원** 여기 양정철 비서관 나와 계시죠? 아까 제가 물어서 확인을 했는데, 엉뚱하게 언론에 대고 ‘저주의 굿판’ 운운하지 말고 청와대의 망국적 인사청탁의 굿판을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군현 위원님의 말씀 뜻은 그 비유적 표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코 망국적 인사판이 아닙니다.

○**이군현 위원** 그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도 국민이 하시겠지만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시간 되면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나중에 또 하시지요.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양주·동두천 출신 정성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간부들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차관급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 700명 정도 됐던 것 알고 계시죠?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정성호 위원** 그중에서 임기 6개월을 채우지 못했던 분들이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성호 위원** 비서실장께서는 청와대에 오래 근무했는데, 또 언론에도 계셨고요. 역대 정부에서 정무직 차관 경질하면서 경질 사유 밝히고 이

렇게 난리 친 적 있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성호 위원** 차관이 반발하고, 부당하다, 인사 청탁이다 이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8월 16일 브리핑을 통해서 경질 사유로 신문유통업사업 추진 부진과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 설득력 부족,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조사 이후에도 계속된 부적절한 언행,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신문유통원이 어느 부처 산하기관입니까? 문광부 산하기관이죠?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죠?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성호 위원** 차관이 그런 정도의 상황도 파악 못하고, 더군다나 신문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차관이 신문법의 핵심 조직인 신문유통원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많은 결점을, 하자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정책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게 경질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언행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경질 여부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 것이고 그런 사안이 없었다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게 없었다면 경질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서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런 분은 본인의 능력보다도 어떻게 운이 따라야 되고,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에 의한 지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일하는 것이고 또 나갈 때 되

면 어떤 이유 없이 나가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무직이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국민들을 고민과 혼란과 고통의 바다에 빠뜨린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더 지적하겠습니다.

8월 20일 민정수석실의 브리핑을 보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작년 11월 총리실에 TF가 구성됐다, 정부는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8, 9개월 전부터 단속에 나섰고 효과가 있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단속 이후 게임 사업장의 폐해와 단속 실태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민정계통에서 이것을 파악했다고 하면 진작에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의 수사도 올해 7월 이후에나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수사 대책을 발표한 게 지난 8월 20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중대 심각한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적절한 조언과 보좌를 못했다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에 정부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원과 검찰 등을 통해서 명확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중대성을 감안해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해 왔고 문광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가 지원 활동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사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십니다. 정책의 실패나 아니면 권력형 비리나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물론 검찰의 엄정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실패든 그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점에 관련되어서 청와대 참모들의 자세를 일신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작년 11월 22일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속기록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자세히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성호 위원**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충환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유진룡 차관의 해임을 결심하셨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비서관이 유진룡 전 차관에 대한 인사 협의를 하는 것 그 자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이 대단히 무례하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는 정무직 차관 인사에 대해서 이런 소란과 무리가 야기된 것 자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특히, ‘배를 찢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도 하기어려운 표현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특히 공직사회는 직위와 계급이 있는데 하급의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런 표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당사자나 주변 관련 인물로 제기되고 있는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법적으로도 하고 한번 정치적으로 꼭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청문회든 뭐든 그것 관련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충환 위원** 고맙습니다.

신문유통원 업무의 추진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 업무 절차상으로 볼 때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문광부의 동료들이나 상사, 또 부하들의 의

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 청와대비서실에서 보는 생각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유 전 차관 경질의 최종적인 결론은 직무상 관련된 그런 검토 과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최종적인 것은 그 최종 과정에서 나온 유 전 차관 측의 몇 가지 부적절한 언행과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은 겁니다.

○**김충환 위원** 영상자료원과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를 부탁해 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보복인사를 한 듯한 결과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인사가 끝났으면 그것으로 됐지 능력부족이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 등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문제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30년씩 공직사회의 공무원을 키워서 최고의 행정책임 위치에 이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적으로 해임할 때 이와 같이 망신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사 다음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1주일 가까이 저희들은 정무직 인사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할 뿐이다, 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원 원장 공모를 할 때 추천된 세 사람을 탈락시킨 것도 L모 씨를 뽑기 위한 들러리 공모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추천된 사람들을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뽑지 않았다고 한 것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 점도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로도 비밀 ‘비’자가 들어있고 영어로 세크리터리(secretary)에도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있는 분들은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뒷분을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비서가 호가호위하고 큰소리치

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군을, 즉 대통령을 모시는 데 있어 대통령의 덕을 흐리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를 모시는 비서실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모습은 가리고 대통령의 모습이 좋게 비치도록 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김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일면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마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절에 청와대비서실은 굳이 그렇게 나서서 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투명한 사회에서는 분명한 사실이 왜곡됐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 국정수행에 있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행태를 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실이 왜곡되거나 거짓이 유포됐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수 위원** 안산 상록갑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을 찾는 이들은 부자들이 아니고 대개 운전기사, 노동자,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이야기에는 아름다운 바다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민들의 눈물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조 규모의 이런 사행성 상품권이 판철 때까지 민정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예방 및 정보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하신 대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는데 이 결과가 여기에 오기까지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또는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 오고 그것을 제시해 왔습니다마는 그 자체로 본질적인 문제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러면 자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어제 정부 측의 사과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된 뒤에 합당한 사과를 하신다고 그

랬지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전체적인 진상을 파악한 뒤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가리고 그 규모와 문제점 등을 분명히 본 뒤에 책임에 따른 사과 문제를 하는 게 합당한 절차이고 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권력형 비리든 정관계 로비가 있었든 이것은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런 정책실패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게이트다 뭐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의 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나 또는 정부, 대통령께서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있을 때 국민들께 사과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한 점도 인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장경수 위원** 그리고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관련설에 대해서 제가 객관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설이 많아서요.

1번 낙하산 인사청탁 거절설, 2번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과정 관련 패썹죄설, 3번 신문법 관련 보수언론의 정보유출설, 4번 신문유통원 부실운영설, 5번 청와대의 인사청탁 공개협박 조기차단설, 이 다섯 가지로 제가 뽑아 보았는데 경질설에 대해서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무직 인사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수 위원** 저는 이런 설이 난무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께서 기고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차관을 지낸 분이 700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6개월을 채 못 하고 떠난 분이 100명이 넘는다. 6개월 만에 차관 물러난 것이 기사가 되고 개인적인 불만이 되는 경우는 정부수립 이

후 처음 일이다”

이것은 처음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반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시스템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종결정 과정에서 아까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유 전 차관께서 부적절한 언행, 언동을 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결정 과정이었고, 그전까지는 사실은 경질보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접해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장경수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수 위원** 김양수입니다.

바다이야기로 정말 온 국민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회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절망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핵심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측근들의 인사 또 낙하산 인사 이런 모든 인사의 결정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지원 씨 관계로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지원 씨는 우전시스템에 입사를 했고 영업이사로서 대표이사로 급료를 받았지만 그 회사는 노지원 씨 입사 후에 65억이라는 각종의 특혜성 용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전시스템은 회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적자투성이였고 또 작년도 매출액만 해도 겨우 200억 남짓하는데 그 회사가 60억 이상이나 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노지원 씨가 직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분명히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서실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6월에 검찰에서는 인어이야기와 황금성 제조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은 기계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다

야기는 7월 6일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전날인 7월 5일 노지원 씨가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대통령께서는 수사 하나만이라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검찰에 어떤 정도 나름대로의 뭐라 할까 뭔가를 보냅니다. 사인을요.

왜 하필이면 ‘바다이야기’가 ‘황금성’이나 ‘인어 이야기’보다 더 늦게 수사가 됐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리고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김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서실장께서, 대통령 친인척이 무려 900명이나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특히 대통령 친인척 중에서 평소에 특A급 관리대상으로 보신 분이 노지원 씨, 또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모님이신 권양숙 여사의 권기문 씨, 아마 이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기문 씨에 대해서 일정한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권기문 씨가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 계시는 것은 알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김양수 위원 우리은행에서 30년 동안 겨우 요즘 말하면 지점장급, 내부 직급으로 말하면 M4라는 직급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에 3년 동안에 지금 이분이 상무급 임원으로 계십니다. 30년 동안 간 그 거리보다도 3년 동안에 각종 여러 가지 자리를 거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표를 한번 해 보았는데요, 대통령선거 직전에 부산에 범천동 지점장을 지내십니다. 이때까지는 M4라는 직책입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도 M4, 2002년 대통령선거 전에도 M4, 대통령선거 마치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부산·경남 지역본부의 지점장 M3로 진급을 합니다. 그다음 또 1년도 안 돼 가지고 미국의 LA지점으로 가십니다. 이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또 신설을 해요. 이때 또 승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1년 조금 남짓해 가지고 M2로 또 승진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사회공헌활동추진사무국장이라는 상무급의 직책,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 자리도 권기문 씨의 자리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사회공헌활동추진사무국을 제가 알아보니 과거에는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여기에서는 인사를 투명하게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대통령 측근들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이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사모님의 친동생 같으면 더 특별하게 남보다 뛰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아주 인사 적체가 심한 곳인데 남들은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야 될 마당에 이 나이에 계속 1년마다 승진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직접적으로 꼭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특정지역의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한길 이병완 실장님, 답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안 된 부분은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분들도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요.

다음은 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고양시 덕양 을 출신 최성입니다.

우리 이병완 실장님하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굳이 청와대예산 관련한 질의는 워낙 예산이 작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정책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개입되는 권력형비리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서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무책임한, 근거 없는 설에 의한 주장을 했을 경우…… 일본의 한 야당 대표가 근거 없는 설을 주장했을 경우 의원직까지 내놓는 사태가 있는 만큼 야당도 그에 걸맞은 근거 있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책임 있는 국정운명을 맡을 기회를 국민들은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바다이야기는 대단히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 기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이번 바다이야기와 관련하여 권력형도박게이트다, 대통령에 대해서 내각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형도박게이트 그리고 내각총사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서 권력게이트는 없습니

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게이트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성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권력 실세, 특히 깜짝 놀랄만한 인사를 포함하면서 소위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386 인사의 개입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청와대 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조사했고,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성역없는 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국정외의 관건적인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야당의 근거 있는 주장 역시 국민을 호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데 얼마 전 이 바다이야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게 주장해 왔던 야당 의원이 여권 실세 2명이 배후에 있으며 국내 조폭이나 일본 쪽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했는데 이 주장을 한 야당 의원이 오히려 국회 문광위에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다’라는 류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국회가,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모든 부분은 감사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절제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최성 위원 최근에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국회와 언론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을 하셨는데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문화관광부 차관이 아예 사행성 부분은 게임산업에서 빼자라고 하자 심각하게 권력형비리를 제기했던 야당 측은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야당에 대한 책임론 또 언론에 대한 비판, 어떤 논리에서 한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야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국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이 효율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뜻에서 말씀을, 원론적인 간단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성 위원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와대 이병완 실장만큼 언론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병완 비서실장께서 야당의 대변인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가 언론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를 넘어서서 갈등·투쟁 관계로 가지 않느냐는 국회의장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제에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관계되는 각종 언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고 전반적인 언론과의 협력 관계를 재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중시하고 왜곡·거짓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응을 통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언론문화도 새롭게 가져가는 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정책 지향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국민과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청와대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순영 위원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께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2005년 8월 27일 신문법 개정 발효가 됐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최순영 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문유통원에 대한 준비팀이 구성됐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최순영 위원 그 준비팀 구성 책임자가 누구셨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쪽은 국내언론비서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라서요.

○최순영 위원 그게 전 유진룡 기획실장이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1/4분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유통원의 원장으로부터 제가 몇 가지 정보를 들었는데 예산이 2월 초에 9억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최근에 나머지 돈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동안 유통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팀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장이 책임을 맡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 팀이 구성이 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일차적으로는 문화관광부의 관련 라인이 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순영 위원** 문제는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지출을 왜 안 했느냐고 했을 때 지출을 하려고 했지만 요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도 답변을 하셨듯이 문광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그런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떤 책임을 추궁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저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게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챙겨오기는 했는데 일단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에, 특히 당시 유진룡 차관은 취임 이전에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임하면서부터도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의 책임을 믿고 상당부분 저희가 위치를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뒤늦게 청와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문광부에 어떻게 묻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문광부로서는 물론 이런 저런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유진룡 전 차관이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팀장이 잘못하고 그렇다면 장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장관 문제는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그리고 포항 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가 농성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서 공권력에 의해서 전용철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하중근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은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기관이 수사주체입니다. 이것은 하중근 노동자 사망 당시 진압의 책임자이고 경북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모두가 인정하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진상조사를 하도록 계속 지시를 해 왔고 독력해 오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과수에서 부검감정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족에게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선병렬 위원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원래 예정된 회의는 운영위 소관 부처의 결산 심의를 하는 날인데 현안이 불거져서 다른 부처에 계신 분들이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진실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기보다는 곧바로 정치적 공방으로 연결되어서 정치쟁점화해서 국론분열을 통해서 국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우리가 많이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늘 의사일정하고는 벗어나지만 진실을 밝혀서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 켜 드리지요’라는 말이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이 그랬다, 양정철 비서관이 그랬다 그래서 갑론을박하였는데 청와대의 어떤 인사라도 ‘배 켜 드리지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누가,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청와대 관계 인사가 만난 사람이 그런 유진룡 차관 같은 사람은 ‘배 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은 사람도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 없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병렬 위원 이것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이 언론인 출신인데 언론인의 감각으로 짚은 콩트 쓴 것 아닙니까? 선동적으로……

인사 청탁을 했다고 유진룡 전 차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됩니까? 어떻게 인사 청탁을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그동안 보도된 그쪽 일부 언론에서 되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병렬 위원 정확하게 ‘아, 유진룡 전 차관이

이런 내용을 갖고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하는구나’ 하는 빌미가 될만한 내용이 됩니까? 청탁을 했든 천거를 했든 추천을 했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리랑TV 부사장 문제를 가지고 인사 협의를 하는 그것을 청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인사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청탁을 했거나 다른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하고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런 인사 문제의 협의는 정무활동의 일상적 청와대와 부처 간의 협의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견보다 장관이나 차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장관이나 차관의 뜻대로 결정되는 적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저도 상임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마다 경질합니까? 청장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더 이상 대답드릴 만한 소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무직 인사와 관련되어서 유진룡 전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빌미가 되어서 사건이 커지는 과정에 바다이야기 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정치공세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제가 출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당 중진 의원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산업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박형준 의원이 부산 국제디지털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게임개발업체로부터 1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광위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속기록입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에요.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산업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건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진룡 전 차관 문제와 바다이야기를 결부시켜서 한나라당 해당 의원이 책임을 정부나 청와대에 돌리려고 신속하게 정치공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오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이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유진룡 차관에 대한 경질 사유는 신문유통원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데 민정수석이 신문유통원 책임을 물었다고 하다가 따져 보니까 신문유통원에 관해서 유 차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문유통원과 관련된 책임에 관해서 김명곤 장관이 명백하게 유 차관은 신문유통원과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체국장 자체도 유 차관은 신문유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매칭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를 준비하지 않는 한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안 내려줘서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 차관이 열심히 기획예산처하고 뛰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인데 그 책임을 물으려면 예산 배정하지 않은 기획예산처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이 그렇게 말한 부분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부분이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경질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도 있고……

○주호영 위원 좋습니다. 신문유통원에 관해서 책임을 물은 것도 한 사유라고 했는데 차관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해당 장관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매체국장도 백방으로 뛰었다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처에 관해서도 그 예산 집행을 요구하면 되지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분명히 그 부분에서도 문광부 책임자로서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종 경질 사유는 이런 몇 가지 인사문제 등을 가지고 “공개하겠다”,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주변 인사들을 동원해서 청와대에 전해 온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마지막, 사실은 경질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졌지만 그래도 경질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주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질 사유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갈수록 조금 바뀌고 궁색해져요. 아까 어느 여당 위원님께서 해방 이후에 차관이 700명이고 6개월 안 한 차관이 100명인데 말썽이 없었다 그러는데 왜 이런 말썽이 나는 것입니까?

유 차관이 튀는 성격이고 특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도 경질 과정이나 일 처리하는 게 이상해서 드러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주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정무직 차관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 없는데, 이것이 떠들어지게 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전해철 수석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아리랑TV 부사장 인선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노출되었고 그런 부분이 갈등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차관이 아주 격앙된 상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차관이 뭐 때문에 격앙하고 뭐 때문에 이견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수석실이 문광부에 대해서 인사를 협의하고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별로 업무 협의는 가능합니다.

○주호영 위원 청와대 업무분장표의 어디에 업무 협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기에 관련된, 아리랑TV는 방송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합니다.

○주호영 위원 협의 가능하다는 근거가 청와대 업무분장표에 없어요. 홍보수석실은 대통령의 홍보 업무에 대한 보좌만 하게 되어 있지 돌아서서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밑의 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없게 되어 있어요. 비서는 비서일 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광의적 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의 공공기

관 인사추천 원칙에 보면 주무부서나 해당 장관은 추천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주호영 위원** 그런데 결국 청와대에서 한 인사 협의라는 것이—추천 못 하게 된 주무부서나 장관에 대해서 인사 협의를 한다는 것이—결국 그 사람들을 추천하게 만드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은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신문에 ‘인사규정을 일탈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 좋은데, 추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추천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비서실에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뜻이 아닙니다.

○**주호영 위원**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웅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청와대와 관련해서 하면 인사문제고 뭐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보시는 건가요?

야당이 발목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야당은, 한나라당은 항상 한나라당다워 왔지 달라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을 왜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노 위원,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노웅래 위원** 이따가 얘기하시지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그것을 연결시킬 수가……

○**위원장 김한길** 질의 계속 하시고요.

○**이병석 위원** 위원장님, 주의를 주세요.

○**김충환 위원** 상대방을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노웅래 위원** 폄하가 아니고 내각 총사퇴를 하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한길** 잠깐만요,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십시오. 하여간 이 질의 끝내고요.

○**노웅래 위원**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와대가 관련해서 하면 왜 이렇게 시끄러

워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시끄럽지 않을 문제가 시끄럽게 되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참모진의 역할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시끄럽지 않게 해 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얹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끄럽다는 말이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사행산업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 언제 대통령한테 처음 보고하셨어요? 사태의 심각성……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태의 심각성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중순에 총리실 주관으로 사행성 게임에 대한 특별단속과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부처 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다, 민생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로 파악해서 보고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민생 관련 대책으로서 했던 것입니다.

○**노웅래 위원** 몇 사람의 가정이 파탄되고 목숨을 끊은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제 수준에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노웅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총리실 주관으로 TF를 구성을 했고 그 이후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2500여 명을 구속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저희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민심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대처를 못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지요, 대통령한테 몇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 자살을 했고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보고 안 하셨기 때문에 얘기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해명하실 때 너무 거친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억울해도 그렇지, 그래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 아닙니까? 대통령의 얼굴과 같은데 그렇게 거칠게 하고 심지어는 권위적으로까지 보이게 하면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은 탈권위를 주장하시고 특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참모진들이 나와서 해명하는 것을 보면 탈권위가 아니고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권력적으로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밝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휘를 써서 하느냐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하셔야지요.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거칠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통령한테 직언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러 가지 조언과 직언, 많이 다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사전 조율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폭넓게 만나시고 준비된 얘기를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노웅래 위원 질의 가운데 ‘한나라당은 늘 그렇다고 치고’ 한 데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노웅래 위원께 묻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니까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서 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고’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까?

○**노웅래 위원** 한나라당이 설령 정치공세를 한

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 김한길** 같은 얘기네요. 그 정도 하면 되었지요.

다음은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병석 위원** 위원장, 제가……

○**위원장 김한길** 예, 한마디 하시지요.

○**이병석 위원** 노웅래 위원의 발언 취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질의나 결산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 야당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관적 재단을 해 놓고 마치 현재 여러 가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는 것처럼 전제를 깔고 들어감으로써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의 해명 발언을 나름대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한길** 그 정도로 하십시오.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라고 할 정도의 사행성 게임이 온 국민 속에 파고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유진룡 문광부차관으로 비롯된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진룡 문광부차관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보복경질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유진룡 전 차관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했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관련 공직기강 업무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직무 감찰한 계기나 이유가 뭐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러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또 민원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거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상진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인사청탁 거절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해야 될,

이렇게까지 나라가 시끄러운데 끝까지 직무감찰 조사결과를 비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당하면 타당하면 털어놓고 국민의 의혹을 씻어 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공개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상진 위원** 앞으로 계속 공개 안 할 의향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결국 인사청탁의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유진룡 전 차관에 대한 국민적 의혹, 나라가 시끄럽다고 여당의원들께서도 인정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앞장서서 당당하게 풀지 못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완 실장께서 직무유기 등이 이유가 돼서 유진룡 전 차관을 경질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에 유 전 차관이 보여준 태도와 언동, 발언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국민적인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유 전 차관의 언행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공개 여부는 제가 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그것은 정무직 차관으로서 정무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 국민이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이것은 상당히 유진룡 전 차관에 대한 굉장히 명예훼손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고 유 전 차관도 자기가 언론지상에도 밝혔듯이 그런 것들을 왜 청와대에서는 당당하게 밝히고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가 돼서 경질했다, 그런 것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청탁 거절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게임방 문제가 지금 전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고 그러한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또 정부가 그것을 조장한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법률 문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무슨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광부에서,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산업 게임업소를 차릴 때 40% 이상을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또 면적을 40%로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행성 게임방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시설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산업은 정부에서 조장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시간이 다 가서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경기 남양주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한국영상자료원장 또 아리랑TV 부사장, 이 직위에 대한 청와대 추천, 제가 볼 때는 추천이고 또는 협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 압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협의와 압력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압력이라 하면 그야말로 압력입니다. 부당한, 적절치 못한 그리고 개별적 사적 인연이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했을 때 그게 압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춘 위원**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차관을 참여정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야당에서 혹시 인사청탁을 한다면 압력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정치 경력은 많지 않습니다만 차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치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과거와 달리 밀실정치라든지 밀실인 사라든지 또는 더욱이 제왕적 총재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 시절의 모든 관행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투명해졌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발전에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차관직에 있는 인물이 청와대 인사 추천 또는 협의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나는 그 자질이 부족하다, 당초에 인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질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에서 제외시킨 것은 고위직의 경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정무직이 바로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차관에 대한 경질 사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나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참여정부가 코드인사에 관한 문제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적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휩쓸려서 비판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시다만 저 역시 거기에 동감합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정책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등용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하는 것은 바로 코드인사를 하기 위해서 집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하는 것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코드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인사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코드인사를 제대로 하면 오히려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서 지탄받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정무

직 차관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 정부에 비해서 지금 우리 참여정부가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거 정권에 비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과거 문민정부 시절이나 이런 것을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대개 보고받기로는 한 반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인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 승진을 시키고 하는 비율이 높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한 가지 예컨대 이 모 전 차관에 대한 인사문제 같은 것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적 코드를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제는 청와대 내부의 코드도 중요하지만, 또 여당과의 코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맞추는 코드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임성도 좋고 책임정치의 구현도 좋지만 국민들이 원치 않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러한 코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드를 국민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유일하게 폐지된 신문이랄까 종이신문의 특정한 신문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사의 사설에 나온 것을 아마 이미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상당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 모 씨에 대한 것, 낙선자 배려, 참여정부 보은인사의 완결판, 또는 결론을 내기를 이 씨에 대한 임용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지 않은 인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질의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이재웅입니다.

이병완 실장님, 최근에 KBS 방송공사 사장인 정연주 씨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최근에 만난 적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임위를 통해서 짧은 시간 5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자료들의 신빙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을 파악해야 비로소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사실이라도 밝힐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서는 도저히 국민들 앞에 사실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자료가 없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감찰에 관한 것들은 다 자료로 남기지요? 어떻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기록은 철저히 남기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기록은 철저히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신상진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니까 실장께서 답변이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직무감찰 등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없는지 그 규정을 지금 바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정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관은 이병완 실장님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책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이재웅 위원** 양정철 비서관이 모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재웅 위원**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충 훑어봤습니다.

○**이재웅 위원** ‘배 썰드리지요’라는 정말 시정잡

배들이나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가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확인할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좋다, 하자,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면책특권 국회의원 계급장 떼고 하자’, 이 말에 대해서 이병완 실장님은 지휘감독의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표현의 적절성·부적절성을 떠나서 아마 그것은 자기의 결백을 강변하기 위한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강변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99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 이 참여정부는 계급장 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합니까?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 볼까요? 붙어보자는 말이지요?’ 이르기 시작하니까 또 여당 의원 중의 한 분이 대통령하고 계급장 떼고 붙자 하고 이제는 비서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보고 계급장 떼고 붙자고 합니다.

참으로 이 참여정부와 여당은 계급장 떼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표현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답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저도 답변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상급 지휘감독의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일단 청문회라는 것은, 양정철 비서관이 언론에 보도한 청문회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의 청문회인지, 국회 청문회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청문회를 얘기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에서 벗어나서 계급장 떼고 토론해 보자는 것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언론에 공표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용규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웅 위원** 협의라는 미명하에 인사에 압력을 가해서 내 사람 앉히기 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들 공모한다는 미명하에 낙하산 인사하고 이렇게 마치 객관적인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사람 앉히기 한다는 지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현 위원 경호실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몇 %라고 했지요?

97.2%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조일현 위원 그중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5억 7500만 원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그렇습니다.

○조일현 위원 금방 수치를 보시기는 뭐 하겠지 만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불용액 중에 82.4%로 12억 9900만 원이 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관장하는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인원을 덜 쓴 것인지 아니면 쓰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깎아서 소위 절감을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2005년도 대통령경호실 정원 525명 중에서 실제 505명만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결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일현 위원 그러면 그 결원 인원에 대해서 경호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었던 건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지장은 없었고요. 그러한 것이 지난 과거에 계속 발생하게 된 사유는 신입 직원을 공채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조일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없어도 될 인원이면 당초부터 예산에 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체가 경호실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잘 하셔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도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인원만큼 그에 따른 예산을 좀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넘치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외국에 갔을 때 우리가 지난번 치른 APEC에 대해서 한국 경호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더라는 사실에 격려를 드립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감사합니다.

○조일현 위원 이병완 실장께 묻겠습니다.

홍보실에서 국정 평가 및 홍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렇습니다.

○조일현 위원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12억 21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대개 어떤 여론조사를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 국정 관련 또는 국정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일현 위원 제가 그것을 내용은 보고자 하지 않는데 어떤 항목을 여론조사했는지 항목만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개 국정지표조사가 주……

○조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만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개 지금까지 그 관련은 대통령의 개별적인……

○조일현 위원 그러니까 못 내놓으시겠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조일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과제로다 쓰셨는데 여기는 해마다 보니까 이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03년의 800만 원이 지난해에는 73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완 실장께 여당에 소속한 한 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저런 인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다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소란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본말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과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인사로 인한 정책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국민 마음에 쏙 들지 않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인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적응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일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내용을 발표

하시더라도 언어를 좀 순화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러면 눈과 귀는 더 밝게 쫓긋 세우되 말은, 입은 대통령을 향해서 정책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은 용역비를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이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에 닿게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좋은 말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이지만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인사문제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을 처음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의 바람은 ‘떠드는’ 이런 단어와 용어보다는 ‘소란스러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이균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김한길** 예, 이균현 위원님.

○**이균현 위원** 여기 참석하신 비서관들께서 좀 들락날락하지 말고 자리에 고정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길** 말씀 참고하십시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나라 혼란 또 인사 난맥으로 전반적으로 국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책임을 이 자리에서 추궁하기 위해서, 야당이 책임 추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여당위원 되시는 분이 책임 소재를 아직도 모르고 또 그 책임 소재에 따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될 그런 계제에 특정야당, 정당을 두고 아주 폄하하고 음해하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서실장님, 이백만 홍보수석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직 몇 달 안 됐을 겁니다.

○**이병석 위원** 몇 달 안 됐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이병석 위원** 이백만 홍보수석이 취임하면서 지난 3년간 평가절하됐던 노 대통령의 가치를 남은 2년 동안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아주 의욕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백만 수석의 이 발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도를 보면 5월 31%, 6월 18.2%, 6월 29일 14.1%, 7월 9일 7.2%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백만 수석은 본인이 장담한 얘기, 직무 능력으로 보면 일단 해임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지도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과 이백만 수석을 관련짓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석 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 절하에, 이백만 수석이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해찬 총리의 골프를 골프로비 미수사건으로 전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악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 또 말하기를 ‘오늘 로비를 했다면 무엇을 로비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강변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상품권 사태와 관련된 회사 가운데 주식회사 삼미가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업체 지정신청을 했다가 지난 2월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주식회사 삼미의 대주주들을 보면 부산 지역 상공인 가운데서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등으로 공교롭게도 이해찬 골프파동에 참석한 사람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바로 이 업체가 3월 1일 이해찬 전 총리와 골프회동을 가진 후 3월 15일 드디어 상품권업체로 선정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치입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실상의 로비로 만

들어진 결과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석 위원** 이 사실은 확인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석 위원** 또 하나 아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차관 관련 직무감찰 보고서를 내놓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놓은 게 오히려 좋습니다. 참여정부가 뭐하나 막힘 없이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기조로 봐서도 그것을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보파리를 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차관 관련 직무감찰 보고서, 두 번째 유 전 차관이 민정수석실에 이메일로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전직 차관의 경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까지 지금 떠들썩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게임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 바다이야기 문제는 정부의 분명한 정책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일차적으로 정책입안과 정책시행 과정에서 결과적인 이런……

○**주승용 위원**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되게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 게임에 빠져 들어 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하고 이런 참,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 진상규명 후에 그리

고 나중에 수준을 보아 가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대통령 사과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인가? 솔직하게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실패해서 온 국민에게 혼돈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면 잘잘못은 뒤에 따지더라도 이런 것을 수습해 줄 중심에 서야 될 분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생긴다든지 어떤 재앙이 발생하면 임금이 ‘모든 건 다 내탓입니다.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임금께서 말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간 그런 경험을 살펴보면 저는 대통령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정부 들어와서는 나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가장 자랑하고 또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측근 비리가 없고 권력형 게이트가 없고 정말 직계존비속들의 비리가 없다 또 부정부패와는 참여정부가 거리가 멀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께서 이런 모든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내탓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을 읽고 오히려 더 포근하게 감싸주는, 위로하고 그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대통령 참모라면 그렇게 한번 직언해 보고 싶은데 비서실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모두에 그와 같은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나 정부 또는 청와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사과를 회피하거나……

○**주승용 위원**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피해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승용 위원** 본질의 파악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수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와 관련되어서 대통령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언급을 하실지 그 여부는 아직.

○**주승용 위원** 양정철 비서관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혀 잘못이 없던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관련된 모든 조사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이상 저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오늘 완전히 결산심사장이 청문회장이 되어 버렸는데요. 양정철 비서관이 2004년도에도 대기업에 행사비용의 분담금을 요청하고 전화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기억에……

○**주승용 위원** 그때도 물의를 일으켜서 공방이 오가면서 기업에 전화통화를 했다 또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 분담금 요청을 하지 않았다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본인은 안 했다고 했다가 뒤에 시인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도 “배 쟈 드리지요.” 이런 말을 안 했다, 했다가 가지고 그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야당이나 일부 언론들이 신뢰성이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을 그런 전력으로……

○**주승용 위원** 아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하시는 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명확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또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유 전 차관의 경질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는 이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유통원 문제와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8월 16일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기자간담회에서도 민

정수석도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분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6월 27일에 조사를 받고 8월 8일 경질 결정이 나는 거의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청와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만약에 경질한다면 인사보복, 인사청탁을 거절한 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류의 것을 폭로할 것이다 이런 전화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몇 통화나 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제가 일일이 거명해서, 거론해서 말씀드리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마는 부적절한 언행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은,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흔히 말하는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을 끌어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치의 어떤 방향을 일관되게 끌고나간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과거에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을 시절에도 이런 것들은 왕왕,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흔히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과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드인사의 비율, 그러니까 주로 말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내부 승진이 아닌 케이스로 임명된 사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구체적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는 그렇게 큰…… 예전과 비교해서 낮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부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선택되는 인물들의 자격이나 자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자격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평가가 굉장히 좋게 났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굳이 이분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한분의 이 모라는 분을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앉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한 공공기관인사운영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 효율성, 개혁성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마 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국민 일반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중시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가 부당청구를 했다는가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분이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그 분야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일부 신문에 제기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증과정에서 이미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검증기준에 그것은 맞기 때문에, 맞다는 게 검증기준에 의해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기준입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데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는……

○**김현미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증기준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검증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증의 기준하고 청와대가 생각했던 검증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겪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증기준이 청와대의 것과 국민의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규 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사과 요구에 대해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한 이후에’ 또는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의 답변 뉘앙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뜻은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 부분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해소된 뒤에 그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실장께서 혹시 이번 사행성 게임장 관련 문제가 된 사안의 피해자 수가 대략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다른 별도의……

○**최용규 위원** 추정치라도 괜찮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별도의 파악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용규 위원** 대략 추정치라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개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해서 100만 또는 15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좋습니다. 100만으로만 보더라도 전 국민의 48분의 1, 성인들의 24분의 1 정도 되겠지요. 피해금액 또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지금 피해가 나 있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2005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도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국지적 대증요법으로 대응하는 동안에 수많은 피해자가 더 계속 양산되고 있었던 이 현상 하나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 도 벌써 사과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요.

과거에 슬롯머신 사건이 나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그 과정을 보면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고 소위 슬롯머신 대부라는 사람이 구속됐고 조직폭력배들이 이어서 구속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건의 본질은 불법적인 호텔의 오락실 운영과 탈세 및 불법적 자금수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는 호텔 등 극히 일부 장소에 국한된 그런 사안이었고요.

피해자도 그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국민 중의 일부, 일부들이었고 가담자도, 그 사건에 가담한 분들도 일부 사업자와 일부 폭력조직

이 가세한 데 불과했는데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게임기 제작업자들이 일부 구속되고 보급업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운영자들의 불법·탈법행위가 일부 드러나고……

장소를 보면 전국의 읍·면·동 시골까지, 전국이 도박장화 돼 있다고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면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서민 대중들, 특히나 서민 대중들이 대다수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당시의 피해자 규모…… 현재 드러난 피해자 규모와 피해 금액 이 현상만 해도 이미 충분히 정책 실패임이 드러나고 당연히 대국민사과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 또는 청와대 차원에서 사과를 외면하거나 기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그에 따르는 사과의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사리에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규 위원** 다른 측에서 제기하는 게이트나 권력비리 의혹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은 해명을 하고 사건의 본질을 다 알고 하겠다는 말씀, 일견 이해는 가지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정책의 오류나 시행상의 문제점 이런 게 어느 수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피해 상황 또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자 이런 게 좀더, 지금은 설 또는 의혹 수준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히 규명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입니다.

○**최용규 위원** 제가 듣기에는 조금 한가하게 대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 또 정확한 결과를 파악한 뒤에 결정하겠다……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불법적 현상이 앞으로 다시 재발했을 때 국가적 대처 시스템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형오 위원** 먼저 의사진행이라고 그럴까요, 신상발언이라고 그럴까요,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위원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하는 발언을 얼핏 하셨는데 제가 원내대표로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발언,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 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이병완 실장,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병완 실장이 느끼는 감하고 제가 느끼는 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짚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열린우리당 동료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어서 메모를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사태의 여러 가지 심각성,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면에 비추어 봐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진정한 건의성 질의를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 실장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습시다마는 이 답변의 어떤 수준으로 보아서는 국민이 생각하고 우리 국회가 생각하는 것과 문제의 본질을 보는데 상당히 시각차가 있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라면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해명 방법이 거칠다, 권위적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적절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와대 보좌진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볼 그런 중요한 발언이다 하는 점에서 실장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비서관 보좌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낙하산 인사 문제, 코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 과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됐다 하다가 과거보다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수인데 낙하산 인사의 본질 또 코드 인사의 본질, 왜 부정적으로 이런 명명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정부에서……

어떤 정부든지 자기 사람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생각할 때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어야지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먼, 단지 가깝다는 이유로 심어둔다 하는 것은 국민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국정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지금 우리 여야 막론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우리 헌법을 들먹일 것도 없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바다이야기’로 비롯된 이런 도박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나 여야 위원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판단한 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청와대 보좌진들이 대통령에게 보좌를 하는 것은 기본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하시더라도 사과로 끝나야지 어떤 토를 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국회 경험으로 또는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보나 사실 보좌진은 보좌진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에 대한 신망이나 신뢰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보좌진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힘써 일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의 대통령을 위한 마음이 어쨌든 간에 보좌진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좌진들이 잘해도 대통령 인기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보좌진이 잘못하면 대통령 인기가 더 내려간다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야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겸허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길 점심을 오래 드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도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선병렬 위원 예.

○위원장 김한길 선병렬 위원님!

○선병렬 위원 오늘 회의가 청와대비서실·기획예산처·국회사무처에 대한 결산 심의인데요. 야당 간사가 의사일정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다른 위원들은 고지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현안 질의도 아니고요.

하여튼 결산 심의로 잡혀 있는 일정에서 앞으로 기획예산처나 국회사무처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다 보내는 것인지, 또 늦더라도 기획예산처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인지, 회의일정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정말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지, 또 기획예산처나 국회사무처에 대한 결산 심사는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분명히 숙지를 한 후에 이 회의가 진행돼야 위원들께서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나오신 분은 돌아가야 하는지 여기 계속 앉아 계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고 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지금 선병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김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길 예, 말씀하시지요,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 위원 일정은 간사님들 간에 대충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늘 이 결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심의에는 현안에 관한 질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면질의도 있기 때문에 저

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상태는…… 저희들이 다 숙지한 상태에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도 역시 서면질의와 함께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많은 국민적 오해, 이런 관심사 속에서 우리가 청와대를 대신해서 나온 이병완 실장님께 현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전에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짧았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그래요.

자,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오늘 기획예산처·국회사무처 결산합니까?

○이병석 위원 오늘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길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오전 의사일정하고 오후 의사일정은 이미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본 오늘 결산심사에 준하는 관련된 의사일정입니다.

다만 오전에 일단 결산심사에 들어가서 관련된 질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오후의 보충질의는 기본 질의 다음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의사일정의 절차입니다.

이제 3시에 개의하는 부분이 우리 한나라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는 선에서 보통 2시 속개를 3시 속개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아까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 전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속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기본 1차 질의를 끝내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은 그대로 보충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보충질의하지 않으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심사 의사진행에 맞는 진행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시각에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하면 질의가 종결되는 것이고요. 대통령비서실 관련 부분의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 종결이 끝나고 나면 또 기획예산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정해진 의사일정인

데 무슨 의사일정을 다시 재논의하고 만들고를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길 예.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병렬 위원님, 대개 이해하셨습니까?

○선병렬 위원 예.

○위원장 김한길 자, 가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도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이군현 위원 양정철 비서관님 좀 나오세요.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돌려 주십시오.

양 비서관께서 아리랑TV 부사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청탁이 아니라 인사 협의다”라는 말을 했지요,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맞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급이 몇 급입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1급입니다.

○이군현 위원 업무분장이 됩니까? 청와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핵심 두 가지가?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대통령 메시지 기획과 전체적인 청와대 국정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청와대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홍보기획비서관 업무가 첫째 대통령 국정 전반의 홍보 전략, 둘째 부처 홍보 지원 업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워낙 여러 가지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군현 위원 아리랑TV 부사장 인사 부탁한 것이 이 두 가지 규정된 홍보기획비서관의 업무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광의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광의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청와대비서관이 아리랑TV 부사장 인사 부탁을 유 차관에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부탁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군현 위원 뭐라고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부탁이 아닙니다.

○**이군현 위원** 협의했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그것은 기획비서관의 생각이고, 협의냐 아니면 청탁이나 하는 것은 그것은 듣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할 적에……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위원님, 그 부분은……

○**이군현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협의할 적에 ‘아, 이것은 청탁이다. 이것은 압력이다’ 동네방네 선언하고 합니까, 누가?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군현 위원** 모든 정황, 지금 비서관이 이야기한 행위에 대해서 보고 아, 이것은 압력성·청탁성이 있는 것이라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서관의……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것은 유진룡 차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군현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봐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문화부장관이나 아리랑TV 사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지금 협의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죠?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위원님, 당신이라는 표현은 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군현 위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

지금까지 대학시절 운동권 출신이시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운동권 출신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세간에 물의를 빚었던 정태수, 그 말 많던 한보회장의 비서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군현 위원** 비서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안 했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이군현 위원** 청와대에 있으면서 아까 이병완 비서실장한테 확인한, ‘조선·동아는 저주의 곶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이 글 쓴 것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썼습니다.

○**이군현 위원** 썼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사학법 개정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테 ‘가출한 박근혜 대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 썼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썼습니다.

○**이군현 위원** 또 박 대표한테 책임감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등등 5무 정치인이라고 발언한 적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글을 썼습니다.

○**이군현 위원** 글을 썼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글하고 말하고 다르지만 그것은 비서관께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제 소신입니다.

○**이군현 위원** 소신이지요? 그래요?

2004년 9월에 삼성그룹에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한 적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돈 애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군현 위원**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뭐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행사 자체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삼성의 담당 부서장과 의논한 통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군현 위원** 의논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발뺌하다가 나중에 공식 사과한 적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공식 사과를 한 것은 돈 애기를 꺼내서 사과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군현 위원** 사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유감 표명하고 공식 사과하고 뭐

가 달라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돈 얘기를 꺼낸 데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따져 보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런 행동들이 비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비서라는 게 뭐예요? 그게 비서의 행동이에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군현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박 대표에 대한 이야기나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비서관으로서 적절하냐고요?

또 아까 직무가 두 가지인데 아리랑TV 부사장과 관련,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하는 이런 것들이 협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서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지금 비서의 본분을 망각한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군현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양 비서관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그게 오만방자한 태도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박근혜 대표에 대한 글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글이 청와대비서관으로서의 본분을 넘어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 지금 대답 자체나 말하는 것이 오만방자하단 말이에요.

“청문회와 관련해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청문회에 응하겠다. 그런데 다만 국회도 면책특권을 버리고 만나자” 이런 발언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발언이 아니고 글입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이나 발언이나 말이야,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위원님, 질의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지금 글하고 말하고 뭐가 틀려요? 그런 글을 썼잖아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그런 글을 썼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내용을 ……

○**이군현 위원**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과 국회의원을 모독한 것 아니요? 사과하십시오, 지금!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군현 위원**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해 가지고……

○**위원장 김한길** 자……

○**이군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과받으십시오. 사과하라고 하세요.

이게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이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위원님, 일개 비서관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일개 비서관이지 뭐야!

○**위원장 김한길** 양 비서관, 질의하는 것만 답하십시오.

○**이군현 위원** 사과해요! 말마다 종알종알하면서 말이야, 오만방자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뭐요, 지금!

○**이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길** 자, 이군현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양 비서관!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이병석 위원** 대통령비서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 자기의 생각이나 소신을 피력한다고 언어로 표현한 자기 소신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괴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께 자꾸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석 정도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서관은 더더구나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왜 그렇게 종알대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는 모양인데 양 비서관이 이제까지 해 온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할 정도면 일말의, 일종의 행위 연결고리에서는 대통령에게 누가 될 만한 정도의 행위도 있었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국정수행을 돕는 비서관의 역할로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은 인정하고 저것은 안 하고, 부분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말로 한 것은 되지만 글로 썼다…… 그러면 양 비서관은 모든 행동과 말이 별개이고 분리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그러면 양 비서관은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비서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 배분이 된 헌법상의 권한 기관에 대해서 그 내부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를 합니까, 자기가?

그 논의를 다른 의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면책특권을 지금 양 비서관이 입에 올릴 수 있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현 위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으면……

○**위원장 김한길** 저 말이지요.

○**이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을 맺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석 위원** 위원장님!

○**이군현 위원** 사과해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저는 면책특권……

○**위원장 김한길** 자, 위원회가 이렇게 마구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요, 양 비서관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이군현 위원도 이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말 마치시지요.

○**이병석 위원** 예, 말을 맺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 비서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것은 주의를 주셔야 되고, 적어도 입법부의 권위와 그리고 입법부 소관 권한 내에 관계되는 부분이, 입법부 관계 밖에 있는 청와대의 비서관이 면책특권 운운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 비서관

이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요.

이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길** 무슨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양 비서관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는 게 좋고……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두 번째, 국회에 나와서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위원장 김한길** 들어가십시오.

자,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군현 위원** 위원장님, 뭘 들여보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군현 위원** 사과 딱 받아야지.

○**정성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결산 자리에서 국무위원도 아니고 또 출석 당사자도 아니고 책임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은, 소위 문자 그대로 일개 비서관을 상대로 우리가 논박을 벌이고 논쟁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현 위원** 논박을 넘어서 오만방자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한길** 아니, 이군현 위원!

○**정성호 위원** 시간 좀 다시 돌려 주세요.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저를 주목해 주시지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라고 오늘 아침에 보도난 이익단체인데 들어보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성호 위원** 오락실 게임 제작·판매 유통회사를 회원으로 둔 이익단체이고 상품권 발행업체 19곳이 여기에 가입해 가지고 덩치를 키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문기사를 보면 모 야당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산국제디지털문화축제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의 지역구에서 이 행사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있었 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국회에 와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했지만, 작년 11월 22일에 있었던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덜 놀랐을 텐데, 이 기사를 보고서 어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의 속기록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문광부가 왜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웠나 한 그 원인…… 사실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2일인데, 그 직전에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사행성 게임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을 위한 TF가 구성됐었지요? 그 직후에 이게 열렸습니다.

이 전체의 취지를 보면 문화관광부 배종신 차관하고 박양우 국장하고 우상호 위원장이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별도 정의 규정을 뒤 가지고 이것은 사행행위특별법에 넘겨서 규제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합니다. 소위가 그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 박형준 위원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제대로 안 읽어 보고 언론만 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 인용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이 ‘첫째 게임장 구분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다, 허가 등록 여부 문제라든가 또는 구별된 것에 대해서 각각 규제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결국 사행성 짙은 게임장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종신 차관하고 박양우 산업국장이 사행성 게임물은 일단 제외하고 사행성 게임은 도박으로 인정해 가지고 사행행위특별법으로 처벌하자 하니까 박 위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행성 게임을 따로 정의를 두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이것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양우 국장은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미 1만 4000개 정도 생겨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게임이란 수단만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도박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행행위특별법에서 다루도록 분류하자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또 박 위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문광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1만 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사행성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 피해자들을 누가 다 보상하느냐, 이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놀이나 게임에 대해서 우리 박형준 위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놀이나 게임에 대해서 일체의 사행성을 배제해야 된다, 그 기준을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 모든 게임에 이런 사행성이 있다, 도박성이 있다, 이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박양우 국장이 경품의 한계라든가 배팅 금액의 한계를 두자고 하니까 거기에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우 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인 게임장 그 자체로, 사행성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따르듯 결과를 내 가지고 돈 넣고 돈 먹는 그런 게임이 이른바 사행게임인데 이것 그렇게 돈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니까 박형규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온라인게임에서도 경품이 얼마나 횡행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스크린 경마든 뭐든 이런 것을 규정대로 안 하고 현금을 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상품권제도의 오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해 갖고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게 되면 아케이드산업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사행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커질 것인데 그 부분의 국내시장을 완전히 죽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 논의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놀이의 시대에서 어느 정도의 사행성, 오락과 결합된 사행성을 막을 수가 없다 말이야. 이것을 법에 규정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겠다, 이 법안을 여기서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임에서 사행성과 도박성 기준은 둘 수가 없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제외시키느냐, 건전한 부분도 있고 불건전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빼 버리면 산업이 망한다……

그 당시 속기록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병석 위원 그것을 지금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뭘 보고하는 거예요?

○정성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는 끝났어요.

○정성호 위원 끝났어도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비서실장이 민정위의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다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해 봤고, 만약 여당 위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제삼자 뇌물 공여라든가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될 것입니다. 처벌을 야당이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엄정한 법률 검토를 지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 저도 증인 신청을 이백만 수석하고 양정철 아까 비서관 있지요? 좀 나와 주십시오. 두 분 같이 나오시고 그 노는 동안에 시간을 좀 빼야 되겠지요?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유 차관 경질문제로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는 차관의 경질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한, 지금 우리가 항간에 또 언론에 이미 보도된 이백만 수석의 적절한 처신이 과연 적절했는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 차관이 이메일로서 떠나면서 이런 글귀를 직원들한테 남겼다는데 제목이 “소호강호였든가 싶다. 참 재미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시 소호강호 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신문에 봤습시다마는 뜻을 잘 모릅니다. 그 소설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양수 위원 이 험한 세상에 참 덧없고 그래서 정말 어이 없이 떠나간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호강호 그 장장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지금 추천한 분이 김희갑 비서관인데 그 분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연구소……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총리로 임명될 때 비서로 들어왔다가 떠나실 때 같이 떠나간 분이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 위원 그리고 그 분하고 아마 저녁식사 자리를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그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 분이 퇴임하고 나서는 한 적이 없고 제가 국정홍보차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분이……

○김양수 위원 아니 식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없습니다.

○김양수 위원 전혀 없는데 그 분 말씀에 의하면, 그 언론사에 나오기를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이 수석이 한번 해 보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김양수 위원 전화로?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예.

○김양수 위원 전화로 그렇게 권유를 하셨구나?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예.

○김양수 위원 전화로 권유를 하셨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예, 최초에 그랬습니다.

○김양수 위원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관께 내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김희갑 씨하고 잘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수석님들하고 다른 분들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특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양수 위원 아니 같은 비서관이면서, 물론 청와대와 총리실의 차이인데……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교분이 많지……

○김양수 위원 63년생과 64년생이면 나이도 옛 비슷하고 이래 가지고 충분히 코드라든지 이런

게 좀 대화가 통하실 분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특별한 교분이 없었습니다.

○**김양수 위원** 우리 양정철 비서관의 이력을 보면요, 전국언론노조연맹 언론노보기자로서 7년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김양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아마 대화가 통할 법도 한데 사전에는 잘 모르셨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김양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김양수 위원** 제가 이번에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2004년도에 양재동입니까? 온 에어(On-Air)쇼에 삼성에 전화를 해 가지고 8억 정도의 분담금을 몇 개 기업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비서관이 전화를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당시 삼성하고 통화를 했고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김양수 위원** 아니 전화를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전화했습니다.

○**김양수 위원** 전화한 용건은 협조? 협의? 뭐 청탁이나 압력은 아닐 거고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 행사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 행사 전반에 대해서 삼성 쪽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김양수 위원** 아니 돈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수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들으면 그걸 어떻게…… 아까 비서관께서는 알아보게 전화했다 치지만 기업에서 들으면 청와대비서관이 전화하면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외압으로 안 느끼……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때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김양수 위원** 아니 기업에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의를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양정철 비서관의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청와대 들어온 후에 달라진 한 가지, 십문십답 본인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조조익선(早早益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뜻이 ‘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도 김희갑 씨가 일을 도와줬고 또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 밑에서도 비서로 지낸 분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자화자찬 한 가지 딱 하라니까 대하무성(大河無聲)이라고 했어요. 큰물은 소리가 안 나지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김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참여정부 들어서만큼, 기자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만큼 또 시끄러운 정부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신 것 같아요. ‘10년 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 하시고는 무념무상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다 하는 것인데, 정말 혹시나 청와대 비서관을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비서관 생활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김양수 위원** 제가 하나 또…… 진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 10문 10답에 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청와대 참모로서 이것 한 가지만은 꼭” 이럴 때 아주 어려운 한자를 써 놓으셨는데, 내용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군자 아니겠느냐, 이 뜻이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예.

○**김양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말씀처럼 군데군데에 그렇게 약간 매끄럽지 못한 언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부를 어렵게 뵈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기획비서관 양정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수 위원** 장경수 위원입니다.

이병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전부 현안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요사이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해 코드 인사니 폐쇄적 인사니 온정주의적 인사니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는 더 그랬다, 또 김대중 정부 때는 더 그랬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억울한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금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는 아주 높아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이 지금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 희망,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 있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치가 높아진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투명성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시스템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될 부분이고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씩 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서 한 발씩 더 발전하는 것이 인사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혁신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래서 청와대가 합리적인 비판은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랑잎에 눈이 가리면 산이 안 보이고, 또 콩알이 귀를 가리면 우레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런 민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다이야기는, 다 아시다시피 사행성 산업은 정말 고통받는 서민들의 팔랑거리는 주머니를 털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항간에는 바다이야기를 횡집 체인점으로 알았다, 또는 횡집으로 알았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정부, 또 국회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바다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앉아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왜 이것을 예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일이 크게 불거졌을 때 비판만 하고 있는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사후적이라도 외양간을 완벽하게 고치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일차적인 정책 결정을 잘못된 정부 책임이 훨씬 더 큼니다만, 그러나 10개월 동안 민생법안을 방치하고, 또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예방적으로 해 주지 못한 우리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행성 게임이 어느 한 부분만의 책임이 아니라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외양간을 확실하게 어떻게 고칠 것인지 소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 일각 수준에서 많은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이런 사행성 기업 또는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환 위원** 이번 바다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제일 첫째는 역시 문광부가 주무부서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문광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

신들 책임보다는 다른 기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심사만 했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비서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책임이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비유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정책입안단계에서 이와 같은 과급영향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계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개선노력을 위한 관련부처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제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또 시행과정에서 이런 점검을 제대로 못한 모니터기관들의 하자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위원** 작년 11월에 이것의 심각성을 비서실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벌써 세월이 8개월 9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행성 사업은 한 달, 두 달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본전을 뽑는 다거나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 정부 자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충환 위원** 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방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부터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 주재하에 관련 체크를 해서…… 그런데 주로 그 당시에는 제도개선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단속 위주의 시책이 많이 따랐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액수가 30조 정도로, 상품권 팔린 것이 30조가 되고 또 그것이 재사용되고 위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7 내지 10배액이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는 300조 적게는 100조 가까운 상품권 판매대금이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는 국세청, 경찰청 같은 단속기관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조 또는 300조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확인된 바 없는 근거 없는 숫자나 액수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작업들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의 정보체계 또는 이런 관리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강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부산의 아주 실력자, 대구의 여권 실세 그리고 모 영화사 말하자면 노사모 핵심인물의 영화사에 2억이 들어갔다 또 노지원 씨 회사에도 상당한 지원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점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또는 세력이 점점 권력적인 요소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개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지금 확인되지 않은 채 의혹 수준의 추측 기사로 일관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명을 거론해서 나온 어떤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수사되고 조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검찰과 감사원이 여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홍보수석, 나와 주십시오.

나올 동안에 비서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에 대통령께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토록 하겠다, 시스템 인사

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에 비하면 참여정부는 정부 인사가 상당히 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남 쪽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6공 때는 공기업 주요 인사의 98%가 낙하산 인사였고 5공 때는 낙하산이 94%, 국민의 정부 때는 93.7%, 문민정부 때는 89.6%가 낙하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53.5%,—이것은 언론보도 내용입니다—역대 정권의 절반 수준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 정권을 보는 눈높이나 시각이 그때보다 엄청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것 같고 계속 낙하산 인사, 회전 인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주 위원님 말씀…… 인사혁신,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역대 정권에 있어서 비선조직이나 이른바 소통령 특권 세력에 의해서 공직의 인사가 좌지우지되었던, 그리고 결국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그런 반성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승용 위원 물론 꼭 낙하산 인사라고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주로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용어에 대해서 신문 또는 언론적 용어이고 정치적 용어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눈높이 잣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역대 정권 보다 낙하산 인사가 절반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더라는 그것에 대해 동감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는 정치권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영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도권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만을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커리어맨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선거제도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 지향을 해 온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어느 가치를 지향해서 설립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치와 방향을 함께하는 그런 정치 문화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승용 위원 낙하산 인사가 되었던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았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기본적으로 능력과 자질인데 정치권에서 하신 분들이……

○주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홍보수석, 이번 문제를 볼 때 인사 시스템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적임자를 찾았고 그 적임자……

○주승용 위원 물론 홍보기획비서관이 아리랑TV 부사장의 인사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광의의 업무에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사수석실은 전혀 이것을 몰라도 됩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아닙니다. 실무자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수석실은 공식적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상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분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비서관을 시키지 않고 문광부 장관이나 아리랑TV 사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문광부가 아리랑TV의 정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승인사항 해 가지고……

○주승용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나 아리랑TV 사장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장관하고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그래 가지고요.

○주승용 위원 말 그대로 협의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차관하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예, 그리고 장관님은……

○주승용 위원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제가 합니다. 저도 하고 비서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좀 오해 받기 충분한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승용 위원 통상적으로 비서관이 차관하고 합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오전의 질의의 연장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2003년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손배가 부당 노동행위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하여튼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건설노조에 손배가 20여억 원이나 지금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항건설의 노동자는 연령이 50~6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건설의 노동자 투쟁 관련해서 구속자가 6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가 유산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거의 두 달이 넘게 농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위직 노동자들이고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참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

서, 당사자들이 해결 못한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상조사를 사실 지방경찰청에 맡긴다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관할 부처하고 해결해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조속히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방경찰청이든 서울경찰청이든 경찰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처리에 있어서, 물론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충분히 있어야 하겠지만 일 처리의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순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물론 절차는 그렇겠지만 신뢰가 떨어지고 그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입을 해야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최순영 위원 만약에 안 그렇다면?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만일 ‘안 그렇다면’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렇지만 그 전제가 아직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서로 신뢰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재를 해서라도 하루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경호실 관련해서 경호실차장에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이 지난 2000년 별정직에서 군인·소방·외교통상·검찰·법원 공무원과 같은 특정직으로 전환되었죠?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현재 군·경찰·소방 공무원들도 경호실과 밀접한 업무와 유관기관들의 별도 보수체계를 갖고 있죠?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한 경호 공무원이 일반

직 공무원에 비해서 5~10년의 정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이 직원들의 조기퇴직 대책 마련이 별도의 보수체제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대책이 혹시나 있으신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우선 위원님께서 대통령경호실 보수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별도 봉급 및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그동안 검토해 왔습시다마는, 금년도에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경호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별도의 직급 및 보수체제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행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령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구요. 무엇보다도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임무에 한시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현 위원** 저는 오늘 오후 회의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국민 보기에 민망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상임위나 또 본회의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보좌진이나 비서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질의를 하지 못하거든요. 또 국회법 제121조에 의하면 답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답변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양해 하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연이어서 비서실장께 진심으로 고언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칼로 목을 베는 도

참이 있고 글로 써서 사람의 목을 자르는 필참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말로 사람의 목을 자르는, 그러한 치명상을 준다는 표현이겠지요.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위치와 격에 맞는 애기로서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격을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과정만 있어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한번쯤 논의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국정홍보실에서 국정 평가 및 홍보에 관해서 여론조사비로 1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 17건에 대해서 내용은 제출하기가 뭐하시다니까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연구용역과제로 준 비용이 4억 1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17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7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대통령비서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정말 잘 보좌하는 것인가? 남은 비용으로 용역 좀 줘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완 실장님 제 얘기가 일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말씀 충분히 새겨 들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우리가 다 격이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가릴 이유는 없고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양균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을 하셨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예.

○**조일현 위원** 결산서를 다 들춰 봐도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실 때 대한민국의 공기업 부문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바 있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예.

○**조일현 위원** 그것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론을 다 모아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일현 위원**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완벽하지를 않아요. 이 얘기를

그 자리에 왔으니 오늘 만난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임금체계가 공기업은 사기업 수준으로 가겠다 하고 공무원들은 공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 하면서 모든 임금체계를 혼드는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전과 가스공사처럼 이익이 남아서 하는 데는 모르지만 농촌공사나 석탄공사처럼 해마다 적자를 내면서 자산을 팔아서 1, 2년 사이에 봉급을 100%, 200%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번 결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가신 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을 실장에게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던 사업을 완료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청와대비서실에서도 더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빨리 논의를 해서……

○**조일현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이 하지만 의지는, 보좌는 아침에 얘기한 대로 아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쫓긋 세우고 대안을 대통령님께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또 국회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되 청와대에서 할 일도 의지를 가져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잘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위원장님께 제 질의순서지만 앞으로는 답변자를 위원님께 세우실 때 답변자격 여부를 가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조일현 위원님 말씀은 양정철 비서관이 여기에서 답변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답변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정철 비서관의 답변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권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

○**주호영 위원** 이병완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철 비서관은 지금 재산공개대상자입니까, 단순 등록대상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마 등록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1급들은 공개대상자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문합니다.

○**주호영 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비서관이 2005년 12월 31일부로 재산상태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2005년에 재산변동상태에 대해서 눈에 띄는 증감이나 이런 신고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공개대상이 아니라면 공개대상이 되기 이전에 등록한 재산등록신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비서관을 정무기획비서관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최근 정무기능의 보완·강화를 위해서 정무비서관실이 아니고 정무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팀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야말로 일부 언론의 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백만 수석이 나와서 통상 문광부차관과 인사협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소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와 문광부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그 부분의 협의는 협의수준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인사운영지침에 의하면 주무부처나 임명권자와 관계된 자는 추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가 정관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서 아닙니까? 차관하고 거기의 인사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디 밖에 물어보십시오. 추천하거나 인사협의를 했다고 그러는지요. 청와대에서 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판단이 있어서 추천을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부서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사협의니 추천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사실은 인사 강요 정도로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선 부처에서 청와대에서 사람을 추천하면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일선 부처에서 추천한 사람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들였고……

○**주호영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일선 부처에서 주관하는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람들도 많이 거부되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좋은 사람은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추천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참으로 위험한 말을 했어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차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그러니까 비서실장, 수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업무범위 아니냐, 그리고 비서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위임받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뜻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추천위원회 시스템상 인사추천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의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그런 표현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 기관에서는 인사추천 들어오면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VIP 뜻이냐고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통령의 의사냐, 당신들이 사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윗사람의 뜻인 것처럼 하느냐, 이것을 꼭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호가호위라는 말이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밑의 사람들이 대신 윗사람의 뜻인 것처럼 추천하고 쓰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받는 기관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냐, 윗분의 뜻이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테고, 실제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빙자해서 인사한 예도 많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과거의 그런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사 관련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실장님, 청탁이나 협조나 이런 말장난 좀 하지 맙시다. 국민들이 웃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이 문광부 차관에게 이 사람 좋으니까 좀 써라 그러면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분명히 인사업무는 국정업무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협의가 없는 인사라는 것이 주호영 위원님께서서는 성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그러면 청와대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다 밑에와 협의해서 뜻을 전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협의라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사가 실현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영 위원** 실현되지 않았는데, 다 실현되다가 실현 안 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주호영 위원** 시간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원장 5명 공모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는 마지막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라온 3배수만 보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거기 추천했던 사람이 3배수 안에 끼지 못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뒤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점수를 보면 소위 인사협의를 해서 추천한 사람이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낮게 나옵니다. 4위하고 점수 차이가 눈에 띄게 낮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면 추천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3배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그 추천을 하급기관이 좋은 사람 있으니까 써달라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지금 집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한길** 주호영 위원님 나중에 또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김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언론 관계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친정과 같은 데를 상대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모셨던 선배이기도 하고, 오늘 많이 거론되는 양정철 비서관은 제가 비서관을 할 때 국장으로 한 팀으로 일을 했었던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질의드렸던 이재용 건보 이사장으로 내정되신 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 또한 저하고 같은 당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로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묻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것을 적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제가 김현미 위원님 말씀에 ‘내정했다’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라와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검증을 거쳐서 결론을 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미 위원** 아는데요,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사 추천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선 그 기준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조세문제가 나왔다면 형사법상 이게 처

벌 대상의 조세 회피나 또는 조세법상의 조세 누락이었느냐, 세금 누락이었느냐 등에 대한 등급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준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검증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평소 시민운동과 대구 구청장을 통해서 정부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또 생각도 바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좋은 분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환경부장관 하셨을 때 잘하셨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문제라든가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을 발표했을 경우에 야당이나 언론이나 일부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예상 자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인사에 있어서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점이 있었다면 지역, 전체 등을 고려한 인재육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고려한 점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분은 이번에 이사장을 안 하셔도 충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이미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예기의 반복인데요, 청와대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인사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언론계에 오래 계셨고 홍보수석을 하셨고 언론과 가장 어려운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자극적이고 표피적이고 기자들 표현대로 성시한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모든 매체, 언론이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몇몇 언론, 신문의 경우는 정략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유지보다는 추측과 의혹, 선동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미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미 8년 반 동안 겪어 왔습니다. 제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부대변인 하면서 신문보다 암 걸려 죽겠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쯤되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 하나를 쓸 때에도 어떠한 문구를 쓰면 내일 아침 제목이 그것이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3년 반 이상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로서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도 피곤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입니다.

이병완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인데 사행성게임방 업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병완 실장께서는 사행성게임 사태, 바다이야기를 위시한 그러한 도박이 판치는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단순한 정책실패인지, 아니면 지금 거론되는 권력의 핵심 측근들 내지는 대통령의 친인척 그것이 권력형게이트적 성격인지 그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지금 신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대통령 주변의 또는 친인척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사실확인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근거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 이병완 실장님께서 확인이 안 됐으면 ‘안 됐다’ 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실무근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신상진 위원** 국민들이 다 보는 언론에 많이.....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리고 이번 사태에.....

○**신상진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2006

년 8월 13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실무적인 차원의 정책적 오류다, 요즘의 사행성 게임방 사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오락실 관련해서는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한테 부끄러운 것이 없다, 게이트는 걱정 마라, 바다이야기와 조카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게이트 수준의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오락실 관련한 정책적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 성인오락실 빼고는 뭐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신상진 위원** 정책적 실패 내지는 오류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셨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정부부처에서 국민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그러한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패다 오류다 판단을 이왕에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또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실패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으면 어떻게 이후에 그것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오늘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어서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 그리고 개선방향 등을 즉 준비를 해 오고 있고 국회와도 협의를 해 온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갈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오전 질의에서 시간 때문에 못 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 시행령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기준에 보면 게임업소의 면적 또는 게임물의 가지수에 대해서 40% 이상을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가되는 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사실 바다이야기든 황금성이든 몇몇 그러한 성

인오락실에 청소년들이 가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파티션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티션 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업소에 청소년들까지도 가게 하게끔 만드는, 의무조항으로 ‘하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정부에서 그것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 지금 또 청소년들이 PC방—인터넷게임제공업소라고 합니다—그런 데 드나드는 데 대해서 중국 같은 데서는 평일은 중독성 때문에 못 드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에 청소년들의 출입시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현 실태를 파악했다면 그것을 이대로까지 오랫동안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지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실장님의 그런 이야기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대로 아까 국회 문광위 속기록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모범이나 허가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또 관련 의혹을 근거로 한 시행령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사하고 있는 게 감사원 감사의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지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위원장대리 최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권력형 도박게이트’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를 제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분 질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각 총사퇴를 제안하신 분은 이재오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대강의 질의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떻게 원내대표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이병완 비서실장님께서 단호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게이트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386 인사의 개입설에 대해서도 ‘청와대 민정에서 책임 있게 조사했고,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전 질의한 속기록을 다시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언제 어떻게 청와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게이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니까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청와대 주변의 권력 게이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민정이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검찰이나 또는 다른 데서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할 텐데 적어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그 게이트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만큼 엄정하고 어떤 강도 높은 내부적 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필요한 조사는 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와 관련된 내부 정보나 이런 부분을 봤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관련된 정보사항이 있으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만에 하나 국민이 우려하는 이런 게이트가 발생했을 경우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권력 게이트의 내용, 양상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권력 게이트라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주변 청와대 근무 인사들 또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비호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을 권력 게이트라고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도 그렇고 또 여러 방송 보도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난달에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결과 조직폭력배가 대부분의 사행성 이런 성인오락실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토록 했습니다.

○**최성 위원** 청와대에 국정원의 보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러 정책 관련 제언들은 관련 부서별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실장님은 보지 않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보고 있는 정책 관련 자료들도 있습니다.

○**최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소속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어제 있었던 발언인데 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세작, 즉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제 통외통위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또 통일부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하고 또 야당 의원이 다시 ‘그것은 오히려 약소한 편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과 통일부의 대응 이런 부분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며 어떤 입장에서 정부는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국정을 같이 담당하는 주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에 국무위원을 세작이라는 일종의 첩자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23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1분 오버하더라도, 마이크가 끊어지더라도 제가 꼭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께 여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도 인수위원회를 참여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슬로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겸손한 마음으로 임기 말까지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혁과 정의, 역사도 좋지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가정 속에 작은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는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에 배가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와대와 참모는 국민의 편에 서서 직언하고 또 반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청와대 참모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모르는 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늘 어느 한 비서관의 일련의 발언 속에서 야당 의원과의 공박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여당 초선 의원의 마음도 상당히 심란하고 할 말이 많다는 점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론과의 긴장관계, 긴장관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전투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더 의연하게 협력적 태도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국회를 좀더 존중해 주시고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과도 계속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마음으로 협력적 관계를 갖는 그런 노력에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대통령께 직언해 주시고 모든 비서관이 이러한 변화된, 쇄신된 마음을 가져 주실 것을 여당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용규** 실장님, 특별히 답변할 게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오전에 추가 답변할 때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문 씨 관련해서 특혜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혀 특혜성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같이 부장에서, 지점장에서 승진했던 분도 지금 부행장, 단장 등의 직책에 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특혜를 위해서 어떤 행

동과 행위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아까 저희 비서관의 답변과 관련되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런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제가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해서 유감을 같이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가는 데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권양숙님의 친동생이 오는 자리가 LA지점 조사역이라든지, 아까 말씀 올렸지만 사회공헌활동 주무국장입니다. 그 임원의 자리가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기문 씨가 1년 만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1년 만에 단계별로 계속 직급이 올라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했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을 얘기했다든지 다른 분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내부 임원의 경력과 이력을 보니까 이 한 분 빼고는 거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용규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조직이든 그런 특혜, 부당한 인사 특전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조사해 보면 아실 겁니다.

○**김양수 위원** 저도 그것을 바라지만요, 우리금융이라는 데가 공적자금 12조가 투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78%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금융은 말이 민간회사지 사실은 정부 국책은행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장이 윗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계속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사 간섭 안 합니다.

○**김양수 위원** 제가 인사 간섭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인사 특해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고요.

○**김양수 위원**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알아서 처신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후에 더 조사하고 연구해서 가지고 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병석 위원** 아까 우리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대통령의 최근 정책인식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부분에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방금 얘기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병석 위원** 그렇지요,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입니다.

먹고 사는 일, 국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거나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한 정권, 민생문제 해결에 실패한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입니다.

지금 현재 이병완 실장께서 자기 입으로 한 얘기에 이것은 뒤돌아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합니다.

더더구나 민생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하는 대통령비서실장님의 증언대로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대의 대통령 지지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는 기적적인 정권운영 기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렸습니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민생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민생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권의 실패, 지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거 몇몇 정권들이 실패를 했습니

다. 대부분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정책적 오류나 몇 가지 아까 지적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 자신 있고, 더더구나 도덕적 피폐에 의해서 또는 친인척의 피폐에 의해서 정권이 실패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병석 위원 대통령 국정수행에는 친인척 문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못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정권의 실패입니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대통령비서실장의 의견에 오히려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보게 되면 겹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민생을 돌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3년 2월 25일부터 2006년 8월 15일까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589건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의 73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언론과의 관계, 과연 이대로 좋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시인과 함께 언론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도 새로운 신뢰관계의 정립을 통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대통령비서실장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론과의 관계에서 언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호주머니에 넣고 언론을 회유하거나 강압했던 그런 방식도 아니고,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또는 암묵적 묵계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서로 투명하게 해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저희들도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현재의 정권의 어려움, 민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현재의 정권 입장에서 결국은 지금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레임덕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시작부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병석 위원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자랑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을 뚫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도 민생문제 해결을 못 했습니까? 모든 게 구조 탓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민생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 논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IMF 환란에서 비롯된 점이 많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병석 위원 환란 문제가 나온 게 언제인데 지금 환란 문제를 여기다 끌어놓고 계세요? 하여튼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관계된 참모진들께서 대통령 보필에 마지막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규 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번 사행성 게임장 정책과 관련하여 사과 필요성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요, 그 판단은 차차 하기로 하고 정책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93년도에 슬롯머신 사건이 났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용규 위원 당시 전국적으로 몇십 개에 불과한 슬롯머신 배후 세력으로 당시 경찰의 현직 치안감이 구속이 됐고 현직 의원이 구속이 되고 당시 병무청장이 해임이 되고 또 현직 고검장이 구속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해당 업을 운영하던 분들은 그것을 다시 부활하고 싶어서 부단히 여러 군데 진정을 하고 노력을 해 왔지만 계속 거절당했고 그러한 부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난데없이 음비계법에 의해서 사행

성 게임이 독버섯처럼 전국적으로 퍼져서 수백 개의 슬롯머신을 능가하는 게임장이 퍼졌고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각 가정의 안방에서 까지도 도박을 즐기는 이러한 세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니면 모든 부분을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연예사업에도 넣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과는 사과고요. 어찌다 정책이 이렇게 잘못 표류해 왔는지 혹시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게임문제와 PC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문제가 제기가 되는 분야도 많고 해서 아까 비서실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도 계속 대책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논의를 해오고 나머지는 그냥 단속 정도로 해 오는 상황에 있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감사도 하고 있고……

○**최용규 위원**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가 협조를 다 못 했다, 이런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저도 그 부분에 관한 분명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법이 개정이 안 돼 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진작 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어느 부분 좀 완벽한 대책이 세워져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더 발생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조사 중에 있고 그게 나오면 완벽한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저도 책임의 일단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분이 바다이야기가 횡집 이야기인 줄 알았다, 또 황금성이 어떻다, 야마토가 어떻다, 저도 과문해서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과거 우리가 슬롯머신 사건을 척결하고 한 10년 정도를 우리나라가 도박으로부터는 조금은 건강하게 지내왔던 그 사회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경마·경정·경륜·복권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행성 제도에 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행성 사업을 가지고 게임이네 하는 미명으로 덮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서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발생한 결산 때마다 애기인데 불용액 발생에 관해서 비서실에서는 예산 절감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왜 매년 똑같은 사유가 반복이 되는지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만 알지 정확한 원인, 향후 축소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소위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텐데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장님, 똑같은 문제가 경호실에도 있는데 경호실 부분은 인건비 문제의 특수성,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의 어려움 또 조기퇴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소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알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는 동안 1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한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소관과 국회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처의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세보증금 반납 등으로 7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005년에 처음 신설된 균특회계는 주세수입 감소 등으로 예산액대비 95.1%인 4조 972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 예산과 정부 전체 예비비,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자체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체 예산 현액은 863억 원으로 이중 858억 원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족소요 총당 등을 위해 1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전체 예비비 및 균특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조 6452억 원은 재해대책 예비비 등 목적예비비 7082억 원과 일반예비비 8067억 원으로 총 1조 5149억 원을 배정하고 133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의 전출금 1조 1130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1583억 원이며 그 중 정부출연금은 500억 원, 자체수입은 108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처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예산 지출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로 인하여 62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8000억 원의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수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위해 7월 21일에 개산예비비 2000억 원을 우선 지원하였고 8월 17일에는 6892억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재민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수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조 834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총 3조 51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정부는 이 중 2조 6741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재해대책예비비를 두 차례에 걸쳐 우선 지출하였으나 약 1조 76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고지원 소요 중 부족한 재원 1조 7600억 원과 향후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예비비 3000억 원,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지방교부세 정산소요 9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처별로는 기획예산처 소관에 예비비 3000억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 3개 부처에 나머지 1조 85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2조 1549억 원으로 우선 2005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8549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1조 3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4조 8076억 원에서 2조 1549억 원이 증가한 146조 9625억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처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한 재해대책예비비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태풍과 호우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편성하여 주신 예비비 1조 2000억 원은 대부분 소진되었으며 현재 약 200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6년간 9월 이후 재해복구비 지원 실적은 평균 5000억 원 수준으로서 금년 9월 이후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 원의 추가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복구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복구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투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저희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추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인사만 하시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사무총장 김태랑 예, 국회사무총장 김태랑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라 하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길 그래요, 약속한 것만 약속 지켜 주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예.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배용수 국회도서관장 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국회도서관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4일간에 걸쳐 제22차 세계의회도서관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아카이빙해서 활용하는 방식인 인터넷자원관리시스템 등 업무를 개발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정책연혁정보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알찬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검색시스템 도입 등 대국민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국회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입법지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처장 배철호 국회예산정책처장 배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도가 설립 3차년도로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재정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기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과 독자적인 경제전망 및 세수추계 그리고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정 관련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했어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에 들어갑니다.

종전과 같이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모두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최용규 위원입니다.

기관들의 결산안이 어차피 예산결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꼭지 하나만 우선 문도록 하고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60개에 달하는 기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지적대로 정부에서도 기금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앞으로 기금 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저희들이 3년마다 기금의 존치평가를 실시해서 목적이 다한 기금이라거나 여건이 맞지 않는 기금은 가급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기획예산처 자체 평가에 의하더라도, 기금운용평가단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중장기 목표가 없는 기금 또 급여체계에 조정이 필요한 기금 이런 부분도 있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그런데 3년마다의 턴을 꼭 염두에 두고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지금 법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런데 대개 그 여건 자체가 매년 바로바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좋습니다.

금년 초에 BTL사업 부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예결위에 공개했는데 국회예결위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128개 사업 6조 2000억 규모의 BTL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최용규 위원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로 제도개선에 치중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많이 경감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설계를 하거나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가 기초조사를 시행해서 하도록 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약이나 발주가 늦어졌고요. 이외에도 사업자들의 투자 위험을 좀 줄여 줘야 BTL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제도개선에 치중을 좀 기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6조 3000억 수준의 고시된 협약은 다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병석 위원과 사회교대)

○**최용규 위원** 그다음에 여타 기획예산처 관련 재해대책 예비비 문제, 예산정책처의 인건비 불용액 문제, 국회도서관의 기업·학교·지자체와 연계한 DB 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석** 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양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 한나라당의 김양수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기능입니다. 입법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의원실과 의원보좌관실입니다. 그렇죠?

○**사무총장 김태랑** 예.

○**김양수 위원** 의원보좌관실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게는 6명에서 9명이 근무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과밀하고 밀식이 된 곳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지 않나, 정말 훌륭한, 좋은 법안과 좋은 정책이 생산되려면 최소한 시대여건에 맞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막연하게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낼 것인지,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진정으로 입법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사무총장 김태랑** 저도 짧은 기간 의원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인원은 지금 더 늘어났는데 공간은 오히려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좁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기획예산처에 제2의원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4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국회가 제2의원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생산이 될 수 있

도록 시기를 좀 당기시고 과감하게 실천해 주시면, 총장님 있을 때 가장 큰 업적으로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에워니아, 해마다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데, 재해 때문에 추경을 짜는데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의 복구예산이라든지 예비비예산이라든지 예산구조에 뭔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치 마치고 들어주십시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예방투자비 대비 피해복구비를 비교해 보면, 2002년 9조 400억, 2003년 6조 7000억, 2004년 1조 8000억, 그래서 5년간 복구비 합계액이 무려 21조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예방투자비의 합계는 11조, 그러니까 21조 대비 11조로 약 절반이지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5년간 복구비는 19조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예방투자비는 약 140조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방투자비가 심지어 복구비의 6배가 넘는, 아주 기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 정말 천문학적인 이런 피해복구액 투입이 반복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재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데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도 사전 예방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본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스톡(stock)이 아직 덜 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복구를 할 때도 임시복구가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개량복구를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사전 예방투자에 역점을 두어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방금 예산처장관 말씀 중에서도 답이 있었는데 복구액 같은 경우 예산이 소하천에 48%인 약 절반이 지금 소하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소하천에 11%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소하천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액을 배분할 때는 미처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소하천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지원받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사전적으로 해야만 사후적인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 가지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 과정이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석 김양수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 위원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장관님, 아무튼 예전에 예결위에서 여러 SOC 투자 국책사업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경의선, 또 그중에서도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국회 예결위에서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갖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의 중요성, 또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산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원래의 2007년 말 조기 개통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오늘 청와대 질의 과정에서 참석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변양균 장관께서도 당초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차관님께서도 경의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민원 문제, 기타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최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비단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으로,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기존에 약속했던 바를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정부에서는 지금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원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그 당시 제가 질의 과정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부는 정부대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정부는 한다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위해서 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예산상에 감당할 부분 다 감당할 수 있다, 원래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사전에 관계자분들의 답변을 듣더라도 정부 예산은 다 확보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경의선 조기 개통의 목표가 애당초 용산에서 문산으로 가는 계획도 그렇고 또 2007년 말 개통될 예정이었던 성산-문산 이런 부분들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서 단순한 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난 해소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의미 있는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경의선사업이 진행되는 데 현재 문제점이 뭐니까? 넘어야 할 산이 어떤 산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관련 지자체 간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루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은 국가가 차질없이 지원하고 또 지역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분담을 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지난번의 답변보다는 진일보한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도 건교부장관께서는 예정대로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담해야 될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가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예정대로 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잡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짤 때 분단된 반쪽만이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시대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최우선의 정책, 예산상의 지

원을 하실 것을 강력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석 최성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최순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과제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차원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혁신 관련 추진사업은 기본사업비 내에 혁신과제추진사업과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내에 혁신능력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최순영 위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혁신능력개발사업에서 연찬회 경비로 집행된 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 현액의 62.6% 수준입니다.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공무원 그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혁신과제추진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 내에서 혁신연찬회 개최 해서 보면 대개 연찬회 장소 임차료가 1000만 원이고 버스 임차료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연찬회 버스 임차료만 1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이처럼 예산편성상의 구분 목적과는 달리 사실 실제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서 혼용되어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능력개발사업은 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이고 혁신과제추진사업은 이런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기본사업비입니다마는, 그래서 두 사업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하는 데 그것이 같

이 합쳐져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두 사업을 통합해서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입법정책개발비 60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해서 논란이 많았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는 몇 가지를 의혹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미리 지급했지요, 그렇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 2005년 8월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평가위원회가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이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올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자고 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예.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제되고 정책개발비 집행의 모든 권한을 지원위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이 지원위원회를 보면 교섭단체의 수석부대표들과 사무총장, 한 네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섭단체에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등등 한데 전혀 의견도 들어가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지원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예.

○최순영 위원 그래서 또다시 올해에도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국회가 정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잘 쓰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원들이 이런 오해를 받고 이랬을 때에는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올해에도 제가 듣기로는 시민단체가 이것을 자료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사무총장 김태랑 예.

○최순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까봐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 김태랑 올해에도 그런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한데, 사실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을 올해부터는 좀 철저하게 연구해서 명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없으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석 최순영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성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의원실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 비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사무총장 김태랑 예.

○정성호 위원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여덟 차례씩, 법령이 새로 바뀔 때마다 새로 추록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사무총장 김태랑 예.

○정성호 위원 그 비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가 지난 5~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전자검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1% 이상입니다. 요새 추세가 또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법제처의 관련 시스템이라든가 각 포털이라든가, 입법 자료를 굉장히 쉽게, 법령집 같은 경우는 실제 요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법령집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한 십몇 년 했지만 법령집을 찾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전자검색하고 그나마 찾을 때는 현행 대법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대법전 하나 갖다 놓고 있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할 때도 늘 대법전 하나씩 갖고 법사위원들은 다 심사를 했는데 이것 좀 바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없앨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의원실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대법전을 하나씩 주는 게 훨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늘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대법전이 필요해 가지고 제가 따로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나 갖다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현행 법령집은 저희가 폐기를 하고 저희들이 대법전을 2~3부씩 구입해서 의원실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정책처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7대에 와 가지고, 국민들은 17대에 와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이 과거보다도 나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수치상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뒷받침하고 있는 예산정책처의 활동도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정책처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2004년에, 물론 특수한 사항도 있지만 2005년 대비해도 거의 100~200%, 각 분야별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력 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예산정책처장 배철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 예산정책처의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성호 위원 특히 비용 추계가 이제 의무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 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늘고 있고 법안 비용 추계가 작년, 올해 대비해서도 한 20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뒷받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상당 정도 예산불용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산정책처장 배철호 계약직 박사의 특성상 대학교라든지 연구원들에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승진기회를 좀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연구직을 신설한다든지 또 복수직급제를 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국회사무처와 협조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과도한 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법령에 대해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재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분명히 기획예산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최초 법령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과도한 재정권 행사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저발전 또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 시행령 만들면서 정부가 보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 현실 여건을 너무나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한 20% 정도, 또는 더 잡아도 한 50% 이하로 잡고 있는데 경기도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타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발전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보조비율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시행령 이하에서 시행할 때 그 보조율이 적용돼야겠습니까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제대로, 말하자면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적으로 보조비율을 얼마로 한다는 게, 이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하고 이런 활용계획, 이런 국고보조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석 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재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서류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변양군 전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사인을 해서 보내신 답변서입니다.

그중에, 이 내용 중에 이렇게 해 놔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줄이고 재정의 경직화 및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통폐합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됩니다. OECD 쪽에서도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회계구조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오셨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재웅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얘기를 꺼내면 또 지역 차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크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변양군 전 장관 재직 시에는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재웅 위원 이번에는 찬성 쪽으로 바뀌셨지요?

(이병석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일단 정부는, 특히 저희 재정 당국으로서 일관되게, 뭐 금년 올해뿐만이 아니라 죽 줄기차게 특별회계는 정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를 안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아니, 이번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질의하신, 이번에도 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서면으로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웅 위원 설치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특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적 판단만으로 배분되거나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고려도, 정치적 기준도 판단도 역시 예산 배분의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도 행정학에서 배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일관성을 지켜 줘야 할 것이고 일관성을 지켜 줄 수 없다면, 만일 바뀐다면 바뀐 것으로서의 일관성도 또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부산의 경우에 지금 하야리아 부대를 공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지원 비율을 기획예산처와 상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지금 시행령 제정과 관련돼 가지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성호 위원님이……

○**이재웅 위원** 시행령은 통과가 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런데 그 시행령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있는데요.

앞서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듯이 시행령에다가 직접 규정하는 방안으로 입안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금 그렇게 안을 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가 지원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드는 데 거기에 국가가 얼마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전지역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지원비를 얼마로 한다 하는, 정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웅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자위에서의 국회 답변을 보면 70 대 30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작년 12월 1일에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도로 하천 공원용지,

이 공공목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법에 통과시키면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처 간의 협의가 없던 사항이고, 말하자면 그게 시행령 이하로 위임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말하자면 어떤 활용계획을 거기에 어떻게 세우는데, 왜냐하면 국고 보조할 때는 그 용도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몇%로 정해 놓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미리 정하지 않을 겁니까, 이번 시행령에서?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시행령에서는 결정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시행령에서는 어떤 원칙만 정해 놓고……

○**이재웅 위원** 원칙만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구체적인 종합계획이나와 봐야 그 종합계획을 봐 가지고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방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를 제가, 언론보도에서는 당정협의회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합의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러니까 저희 재정당국 입장으로는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따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주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 외

에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편성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가 매년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주승용 위원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금년에도 1765억이나 작년에는 1365억, 법무부의 공공요금 이것은 지금 87억이나 작년에는 105억, 이렇게 해서 예비비의 어떤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 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소요가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다음에 사무총장님!

○사무총장 김태량 예.

○주승용 위원 아까 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6대에 비해서 17대에 들어와서 법률안을 입안 의뢰하거나 검토 요구한 건수가 16대 때는 연 평균 420건, 17대 들어와서는 1373건, 그래서 한 3배 이상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뢰가 많아지고 있는데 법제실 직원은 16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원 51명에 현원 4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증가하니까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의원들 역시 법제실에서 성안된 법률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총장 김태량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인적 증원 문제, 저희들이 현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입법안이 근, 전 10년에 비해서 입법안이 늘어난 것은 다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전혀 변함이 없이 업무량만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번에 인사 적재, 앞으로 계획안을 저

희들이 수립해서 한 76명 정도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그 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아니, 증원을 하라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 의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입법과 감사활동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 김태량 예.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증가가 아니고 3배 이상, 17대에 들어와서 16대에 비해서 법안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원도 51명이나 되는데 48명으로 16대나 똑같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도 2005년에 3300억인 예산이, 내년 예산에 420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회의원의 의정 보좌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다 과감히 투자하는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량 예.

우선, 그것 조금 말씀드릴까요?

○주승용 위원 그게 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의원실에 원탁하고 의자하고 TV받침대를 넣었는데요. 사실 좁은 의원실에다 그 큰 원탁을 놓고 보니까 반려할 수도 없고, 이것을 쓰다 보니까…… 불필요한 의원실에서는 그것을 지금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 배정되면 어떻게 집행만 하고 말자는 것보다는 각 의원실에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문조사는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는 이런 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물품 구입이 거의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쟁입찰이나 조달청 구매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 김태랑** 그래서 거기는 아마 단가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한도액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경쟁을 포함한 이른바 관계 규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은 의원님실이나 국회에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직접 문의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을 적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의 신상진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재정사업 성과평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재정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신상진 위원** 2005년도에 사업평가액이 얼마로 배정됐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총 2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7600만 원만 집행되고 1억 24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재정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좀 개선할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좀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게 성과관리본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에 출범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이월이 있었습니까, 금년부터는 이월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인건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 최근 3년간 인건비가 부족해서 총 17억여 원이 전용되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건비 전용이 해마다 계속되는 이유,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29억 3000만 원, 2004년도에는 8억 1500만 원, 2005년도에는 16억 69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에 대한 전용이 계속 있는 게 안 고쳐집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어진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기관에서 저희 기획예산처 직원을 좀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별도 정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 예산상의 책정 인건비보다도 집행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별도 정원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서 책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국회도서관 배용수 도서관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의 인력이, 지금 총 정원이 몇 명이지요?

○**도서관장 배용수** 275명입니다.

○**신상진 위원** 결원이 좀 있지요?

○**도서관장 배용수** 예.

○**신상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서관장 배용수** 지금 9명 정도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9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말에 13명 결원인데 더 보강이 되었습니까?

○**도서관장 배용수** 예, 다시 지난번에 좀 보완을 시켰습니다.

○**신상진 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2006년도에 예산 대비 4.8%쯤 되지요?

○**도서관장 배용수**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이 왜, 사람을 빨리 더 보완해서 충원해서 쓸 것이면 쓰지 않으면 예산을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불용이 생기는 주요 사유가 결원 발생하고 평균적인 기준 호봉에서 미달해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특성상 여직원이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하고 배우자 동반휴직이 예외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휴직을 할지 안 할지 몰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신상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서……

도서관장께 끝으로, 98년도부터 국회도서관에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있었지요?

○도서관장 배용수 예.

○신상진 위원 그게 금년 5월까지 총 270억 원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협약한 기관 말고 일반인들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원문을 검색하거나 이런 데 상당히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자도서관 구축까지 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도서관장 배용수 저희들이 열린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상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작권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협정을 맺은……

○신상진 위원 시간이 다 끝났는데 하여튼 일반인들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좀더 질 높은 그런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배용수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수 위원 안산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화사업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업이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약 83억 투입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또 종이 없는 회의장이 구현됐는데 그런데 왜 인사에 관한 안건 같은 것은 비기록표결 시에 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커튼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어떨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일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어떤 법령상의 미비 때문입니까?

○사무총장 김태량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을 맡은 분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의사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사국장 기노진 예, 의사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면요, 기명·무기명 투표절차에 대해서 명패함·투표함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투표로 하게 되면 일단 카드만으로 해서 명패 효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됨으로 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그런……

○의사국장 기노진 법안이 지금 운영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수 위원 다시 말해 보십시오. 국회법 몇 조요?

○의사국장 기노진 제114조제1항입니다.

○장경수 위원 제114조제1항, 그러니까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상 미비로 아직……

○의사국장 기노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의사국장 기노진 예.

○장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한 말씀 드릴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SOC 투자비가 계속 이렇게 2004년부터 축소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 목표에 맞게 재정을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가 정책 목표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재정도 여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SOC 투자가 계속 감소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또 민생경기가 일어나지 않고 침체되고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SOC 투자를 줄이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성장기반이 어떻게

좀 퇴색·퇴보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최근에 건설경기가 좀 부진해서 아무래도 그것이 또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SOC 투자는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SOC 투자 스톱이 좀 쌓여 가면서 어느 정도 결국은 나중에 건설업 자체가 소프트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줄어가야 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그게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지나치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이 단위공구당 사업비가 줄어들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제 분야 쪽은, 특히 SOC 같은 경우에는 민자를 활용해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국책사업들의 공기가 늦어지는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해결책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수 위원 그런데 늦어져도 1, 2년 늦어진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러겠습니다.

○장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사무총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 두 시간 의원회관에 에어컨을 더 돌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회운영위 준비하느라고 며칠 동안 저녁에 남아 있어 보니까 말이지요, 퇴근하면 에어컨을 꺼 버리니까 날씨는 이렇게 폭폭 찌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설치해 주시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국회의원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직원 분들은 대부

분 퇴근을 다 하실는지 모르지만 의원실마다 많이들 남아 있는데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의원회관이,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으면서 부담스러워서, 또 언론에서 의원들이 자기네들 복지 챙긴다고 혹시 써버릴까 봐 아마 다들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은 못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의원회관이 사실 보좌진 6명에 인턴까지 있으면 공간이 좁아 가지고 말이지요.

솔직히 아마 기자 분들도 처음 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고 또 방문객들도 정말 이렇게 좁은 줄 몰랐다, 그래서 그게 나라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사무총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보좌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총장 김태량 아까 그 문제는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 회관도 그렇고 우리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층에 전부 다 모여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 보면 입법조사관이나 심의관님들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네 사람이 앉아 가지고 궁둥이 비틀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런 자리에 앉아서 큰 뜻을 가지고 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군현 위원 총장님, 취지에는 공감하시지요?

○사무총장 김태량 예.

○이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여기에서 무슨 결론이 날 일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한번 세워서 가지고……

결국 기획예산처도 있고 국회도 다 해야 예산이 타지는 것이니까, 정말로 국회에서 자궁심을 가지고 일해야 될 보좌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말 열악한 것 같아서 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동감하시면 한번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정도만 드리고요.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빚을 얼마를 줄여지고 시작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때 약 백……

○이군현 위원 130조 규모로 시작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 3년 넘어가면서 국가채무가 거의 2배로 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군현 위원 거의 2배로 늘었는데, 결국 250조 돈이면 국민 1인당 빛이 한 500만 원 돈이 넘게 된다고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한 가구당 한 2000만 원 돈의 빛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국민 1인당 개념으로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채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외평채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율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군현 위원 아니, 물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총 채무가 250조면 대략 우리가 쉽게 국민 수가 얼마니까 이게 1인당 하면 이런 금액까지 나온다 하는 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순 빛이냐, 아니면 채권하고 채무를 같이 한 것은 그 부분에서 제외해 놓고 볼 것이냐, 국민들은 오해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군현 위원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 틈만 나면 ‘개혁, 개혁’ 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군현 위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4대 개혁 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4대 개혁입법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국가 전체적인 4대 개혁입법……

○이군현 위원 예, 국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죄송합니다.

○이군현 위원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법이 과거사법하고 신문법, 얼마 전에 날치기 통과한 사학법…… 그다음에 이제 넷 중의 하나 남았습니다, 국보법. 이 4개가 핵심 4대 개혁법이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는, 개혁의 목적이 됩니까? 국

민 잘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개혁, 개혁’ 했는데 결국 서민층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산층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체계를 관장하는 장관님이시니까 정말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 돈을 좀…… 세부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 주시고, 그리고 빛이 이렇게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2008년이면…… 2004년도에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2008년에 가면 균형 예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2009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통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군사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빛은 이렇게 많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작통권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군사 무기를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적이, 북한이 현존하는 우리 상황하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만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통권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매년 군사 무기 현대화를 위해서 세울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통권 환수에 따른 총 국방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몇 년도까지 수립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국방부와 관련된 재정 소요는 저희들이 국방 준비 계획이 있고 2020년까지의 군 전력 증강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소요의 초점은 작통권 문제에 있다기보다도 저희들 군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너무 병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대 인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병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 구조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력 증강을 고도화해 가지고 대처하는 쪽

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군 구조의 현대화에 따라서…… 재정소요가 결정이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소요가 적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볼 때 저희들이 약 한 9%대의 증가율을 일정기간 유지를 하면 한 6~7년 후 정도 되면 증가율도 굉장히 한 2~3% 대로 떨어지는, 초기투자도 많고 그 뒤에는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군현 위원 총액을 얼마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총액금액은 잘 생각이나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력투자의 성격상…… 자체가 초기에는 좀 많이 드는데 다음 해에는 줄어드는 구조로 해 가지고……

○이군현 위원 아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데 9%대로 증가시키면……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꼭 이게 지금 작통권문제하고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우리 현재의 군 구조 개편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방재정소요가 주로 결정이……

○위원장 김한길 이군현 위원님!

○이군현 위원 죄송한데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군 병력이라는 게 사병인력…… 사병월급은 한 달에 몇 만원 됩니까? 몇 십만 중에서 핵심은 군 작통권 가져오게 되면 현 남북한 대치상황 하에서 핵심은 군의 화력을, 즉 전력을 증가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육백이십몇조가 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저에게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길 그것은 국방부 협조를 얻든지 하셔서 이군현 위원님께 전해 드리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군현 위원님께서 4대 개혁입법, 참여정부의 목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이 아닙니다. 그게 17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당 원내에서 설정한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박기춘 위원 참여정부하고 우리당하고는 차이를 뒤야지요.

○이군현 위원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기춘 위원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에서, 17대 국회에서……

○위원장 김한길 자, 잠깐만요. 토론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기회 드릴게요.

○박기춘 위원 저도 개혁, 개혁,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전신인 문민정부이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개혁, 개혁 하다가 마무리에 가서 IMF를 일으켰던 그런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성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장경수 위원 질의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각종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SOC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부처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물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든, 아까 경인선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경춘선,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발표된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지요?

거의 없는데 그것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기획예산처도 거기에서 같이 협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예산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켜지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원 배분상 그리고 또 사실은 모든 사업을 좀 완공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착수된 공사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이게 재정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 투자를 하기 전에 그 사업의 당초,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공기는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무관하게 공기가 좀 책정되는 그런 측면도, 두 가지가 겹쳐서 이제 공기가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기춘 위원 그게 수년 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지켜져 오거든요. 같은 정부에서 그게 잘 안 맞으면 안 되지요.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터무니없는 기간이 발표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 철저하게 협의하면서 발표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지난 5년간 9월 이후에 재해복구비, 국고지원현황을 보니까요. 태풍 루사가 발생한 2002년도라든지 또는 태풍 매미가 발생한 2003년도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많게는 1662억 원의 재해복구비용이 국고지원이 됐다는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비비 증액규모가 300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박기춘 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금년도 9월 이후에 추가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2002년도의 루사와 2003년도의 매미는 원래 이례적으로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두 해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4년간 평균을 해 보면 집행한 것이 약 5000억 수준이 나옵니다.

○박기춘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 4년간이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재해대책비를 집행한 실적이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2001년, 2004년, 2005년, 3년 평균을 하면 5418억 원이 나옵니다.

2002년, 2003년은 워낙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기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년간의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2478억, 2004년도 4500억, 2005년도에도 또 역시 발생했습니다.

물론 재해 예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박기춘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병석 위원 김현미 위원님……

○위원장 김한길 예,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부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을 때 외평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 그래서 순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당시의 채권과 채무, 그래서 순채무는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일단 참여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한 134조 정도 됐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저희들이 한 280조 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결국은 외환시장 안정기간에 외평채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늘어난 것 중에서 외평채가 한 4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외환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공적자금 국채 전환한 것이 한 42조 원이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결국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일반회계 국채는 한 15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국가채무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기금에서 본다면 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결국 용자를 해서 용자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외평채 같은 경우도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과 채무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만 국제기준으로 채무를 정의할 때에는 일단 그런 채무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통계상 그렇게 분류는 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 말씀 들은 것을 계산해 보면 현재 채무가 280조인데 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면 101조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채무가 18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50조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마술을 부립니다. 숫자의 마술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도 유의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김현미 위원** 기획예산처가 올해 들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법안이 국가재정법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가재정법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편성권과 심의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지요, 의결권의 문제? 그래서 행정부가 편성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김현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특히 편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부문 재정운용의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회계제도를 개혁하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사업을 위한 기획단이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김현미 위원** 이름이 너무 긴데 그 기획단의 운영비에서 발주하기로 했던 2005년도 연구용역 과제 14개 중에서 실제 발주한 것은 2개였지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용역과제 중에서 3개의 과제는 시스템 개발비에서 사용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김현미 위원** 그리고 원래 기존 예산에 있었던 3억 9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경상경비 즉 관서 운영비 및 인건비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4개 용역과제 중에서 5개밖에 수행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정책연구용역과제에서 원래 했었던 예산에서는 2개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시스템 개발비에서 가져다 쓰고 그리고 전용했었던, 연구개발비에서 전용했었던 것들은 또 관서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로 가고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저도 이것을 한참 보고서 이 돈이 이리 가고 저 돈이 저리 가고 알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전용의 권한은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신고포상금에서 남은 돈을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예비비로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일반급여는 예비비로 되지만 ……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연차 이런 것은 신고포상금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해라, 사업 예산에서 전용하라고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예산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전용을 계속하면 당초 예산을 짜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회가 의결해 준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내용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그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 따라서 예산체계가 복잡해진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병석 위원 원래 추정 규모가 2조 1549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예.

○이병석 위원 정말 무슨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매년 재해복구 등 추정편성으로 국가 예산체계의 근간이 계속 흔들리는 연례적인 추정편성을 이대로 지속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 부분의 피해복구가,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복구액을 투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천으로부터의 피해액이 전체 수해나 태풍 피해가 오게 되면 반정도 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예측한다고 얘기하면서 소방방재청까지 만들어 외청화시키고 그렇게 기구를 확대 개편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똑같은 규모의 추정편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계속 국민의 혈세로 구완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의견을 한번 내 볼 테니 타당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공사를 만들어서 그 창설을 통해서 현재 성공적으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공사 같은 것을 하나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까?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방재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추정 편성이 되면 그때그때 피해가 난 그 액수만큼을 받아다가 복구하고 하는데 하천관리공사와 같은 정부 출연 공사를 만들고 하상이 돌출되어서 손도 대지 않은 부분은 이것은 자체에서 골재채취를 통해서 충분히 하천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이공계 인력을 여러 가지로 우대하고 그 쪽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계되는 전국의 하천 관련 토목공사를 이공계 전문인력의 일자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해복구가 아니라 수해예방을 전제로 하는, 1년 365일을 전문가적인 섬세하고도 아주 기술적인 최고의 우리나라 이공계 출신 토목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전국의 하천을 도로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정부출연을 통해서 하고 그 자체에서 나중에 재정 자립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가 출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이 기구로 하여금 전국에, 물론 여기에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넘는 데 너무 많은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하천관리공사에 관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국의 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그 자체의 하천관리를 통해서, 하상 관리나 여러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연중 예방적 관점에서 미리 손쓸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위원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꼭 하천관리공사는 아닙니다마는 비슷한 취지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다목적 댐이라든가 이런 댐 건설을 많이 담당해 오던 기관이 수자원공사인데 실제 물 관리에 있어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댐 건설 신규 추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방 소하천이 문제인데 소하천 문제에 지방과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인가 그 부분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기존에 있는 기구와는…… 그 기구에서 나오는 알력은 또 다른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하게 매우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 골재 채취라든가 하천 환경정비 과정에서 수많은 재산가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재산 가치를 통해서 스스로 그 자체에서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또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자립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기획예산처장관이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용규 위원, 주승용 위원, 최순영 위원, 김현미 위원, 이병석 위원 제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또 질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처 소관과 국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결산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김 양 수	김 충 환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노 웅 래	박 기 춘	박 세 환
선 병 렬	신 상 진	이 군 현	이 병 석
이 재 응	장 경 수	정 성 호	조 일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최 성	최 순 영
최 용 규			

○청가 위원(1인)

김 효 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 병 옥
입 법 심 의 관	빈 성 림

○정부측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비 서 실 장	이 병 완	
정 책 실 장	변 양 균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 대 회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서 주 석
홍보수석비서관	이 백 만
총 무 비 서 관	정 상 문
민 정 비 서 관	남 영 주
교육문화비서관	최 경 회
인사관리비서관	문 해 남
민원제도비서관	허 성 무
시민사회비서관	김 택 수
홍보기획비서관	양 정 철
기획조정비서관	소 문 상
정책조정비서관	김 성 환
대통령경호실	
차 장	염 상 국
혁 신 기 획 실 장	조 규 장
행 정 본 부 장	주 대 준
경 호 본 부 장	최 승 식
안 전 본 부 장	주 영 훈
훈 련 원 장	한 순 현
감 사 관	연 규 용

기획예산처

장 관	장 병 완
차 관	정 해 방
정책홍보관리실장	신 철 식
재 정 전 략 실 장	이 창 호
재 정 운 용 실 장	반 장 식
성 과관리본부장	진 영 곤
공 공혁신훈본부장	배 국 환
사회재정기획단장	서 병 훈
산업재정기획단장	김 동 연
행정재정기획단장	강 계 두
재 정 정책 기 획 관	이 수 원
전 략 기 획 관	강 호 인
균형발전재정기획관	권 해 상
재 정운용기획관	이 용 결
민 간투자기획관	이 영 근
기금제도기획관	김 병 덕
공 보 관 리 관	이 재 구
디 지 털 예 산 · 회 계 시 스템 추진 기획 단 장	강 태 혁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김 태 량
입 법 차 장	민 동 기
사 무 차 장	김 용 구

기획조정실장	이병길
법제실장	김인철
의사국장	기노진
관리국장	최양규
연수국장	이윤희
공보관	김영근
감사관	이길성
방송기획관	유일기
총무과장	조용복
기록보존소장	김구
국회도서관	
도서관장	배용수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
기획관리관	문병철
수서정리국장	장숙경
참고봉사국장	홍기철
총무과장	김운용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실장	배철호
예산분석실장	국경복
경제분석실장	이인실
기획관리관	주채연
사업평가국장	김태훈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 위원	보임 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최철국	최성	열린우리당	2006.8.24